

Cleaner Ocean for Happier Earth

2018/2019 해양환경공단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About This Report

보고서 개요 및 특징

해양환경공단은 2012년부터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를 발간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공단의 경영 활동과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에 대해 투명하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보고서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지속적 혁신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대책, 포용적 공공서비스 강화, 동반성장 문화 확산 등의 이슈를 중요히 보고하였습니다.

보고 원칙과 기준

본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Standards의 핵심적(Core) 부합방식을 준수하여 작성되었으며, ISO 26000, UNGC(UN Global Compact) 10대 원칙 등도 추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보고 기간 및 경계

본 보고서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0월까지의 공단이 창출한 사회적가치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활동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량적 성과의 경우에는 추세를 파악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 데이터를 공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공단의 본사와 소속기관을 포함한 경제, 사회, 환경적 데이터를 보고하고 있으며, 일부 제외된 데이터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보고서 검증

보고 내용의 신뢰성 제고와 품질 향상을 위해 제3자 검증기관을 통해 외부검증을 시행하였습니다.

추가 정보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관한 의견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환경공단(Korea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Corporation)

Tel 02-3498-8753 Fax 02-3462-7707

E-mail mhpark@koem.or.kr Homepage www.koem.or.kr

(05718) 서울시 송파구 송파대로28길 28 사회적가치·혁신팀





해양환경공단은 바다에 사회적가치를 더하는 국민을 위한 공공기관입니다.



Cover Story

해양환경공단은 일곱 번째 사회적 가치실현보고서를 발간하며, 바다를 배경으로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을 통해 공단이 만들어 갈 따뜻한 미래를 표현하였습니다.



Contents

Overview	4 CEO 메시지
	6 2018 & 2019 KOEM Highlights
	8 Company Profile
	10 KOEM Social Value
함께하는 환경보전	15 미래에 대비한 해양보전 서비스
	17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개선 서비스
	18 함께하는 해양환경가치 공유서비스
안심하고 향유하는 해양환경	21 해양오염사고 예방
	21 해양오염사고 대비와 대응
	23 공익을 위한 해양사업
실천하는 맑은 경영	25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
	26 사람이 우선인 인권경영 실천
	28 청렴한 윤리경영 실현
가치있는 상생협력	31 좋은 일자리 창출
	34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36 동반성장 내재화
Appendix	38 인재경영
	42 안전경영
	44 리스크관리
	45 이해관계자 참여
	46 중대성 평가 및 보고내용
	48 지속가능경영 정량 데이터
	52 GRI Standards Index
	54 제3자 검증의견서
	56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58 수상실적 현황
	60 가입단체 현황

CEO 메시지



“해양환경공단은
사람 중심의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리 바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하여 KOEM과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를 만들어 가는데 애쓰고 계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해양생태계는 해양기후변화, 육상과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양 쓰레기, 외래 유해해양생물에 의한 해양생태계 파괴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양환경이 건강하지 못하면 인류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수산물 공급, 해양관광 등 다양한 바다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들의 불안과 불편을 덜어드리고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환경 각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창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단은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힘써 왔습니다. '국민과 함께 해양환경 가치를 실현하는 KOEM'이라는 사회적가치 비전을 정립하고, 4대 전략인 '안심하고 향유하는 해양환경', '함께하는 환경보전', '가치 있는 상생협력', '실천하는 맑은 경영'에 따른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4대 전략을 중심으로 KOEM의 노력과 성과를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안심하고 향유하는 해양환경

KOEM은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전주기적 해양쓰레기 관리체제를 마련하였으며, 오염퇴적물 준설 확대, 해양미세플라스틱 측정 등 해양쓰레기 저감과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 확대,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및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에도 앞장 서고 있으며, 남해 EEZ 골재단지는 이해관계자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친환경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천후에도 해양오염사고 대응이 가능한 5천톤급 다목적대형방제선을 건조하는 한편, 침몰선박에 대한 잔존유 조사와 잔존유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푸른 바다를 더욱 안전하게 지켜나가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둘째, 함께하는 환경보전

KOEM은 해양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 하고, 어촌계와 함께 초동방제 대응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참여형 해양 환경 보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이동교실 운영, 소외계층에 대한 해양환경교육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의 최고 영예인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 헌액 등의 결실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여러 국가의 해양환경 개선을 지원 하기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남방정책 관련 국제협력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공단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가치 있는 상생협력

KOEM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100% 전환, 체험형 인턴 프로그램 확대, 신성장사업 발굴, 업무 혁신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해양 환경산업의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 경제기업 물품 우선구매 문화를 조성하며 정부에서 권장하는 구매율을 100% 달성하는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 동반성장, 이해관계자 인권증진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이러한 활동이 해양환경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실천하는 맑은 경영

KOEM은 경영진이 솔선수범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와 반부패 개혁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어민 대상 선저폐수 무상수거, 시설 개방을 통한 공간 기부 등 공단이 보유한 역량을 활용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함은 물론, 인권 중심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 하며 근로자들의 안전한 일터를 조성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건강한 바다를 미래 세대에 물려줄 수 있도록 해양 환경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일자리창출, 인권, 윤리, 환경, 안전, 동반성장 등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며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박승기

박승기

2018 & 2019 KOEM Highlights

역대 최대 면적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해양환경공단은 지속적으로 해양보호구역을 넓혀가며 해양 보전가치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역대 최대 면적이자 기존 해양보호구역 면적의 3배에 달하는 1,777km²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해양미세플라스틱·미세먼지 대응

공단은 2018년 해양미세플라스틱 정기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였고, 2019년에는 우리나라 해역 7곳에서 해양미세플라스틱 시범조사를 실시하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을 지원하여 항만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습니다.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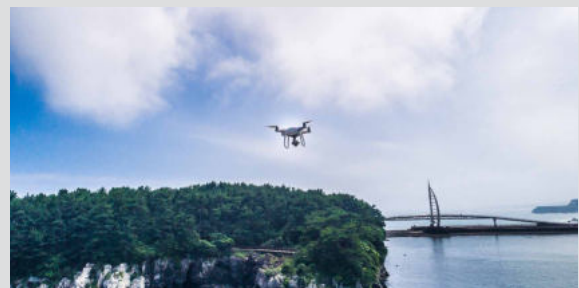
국민 니즈를 반영한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 ZERO화

공단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KOEM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총 24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양분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에는 공단 핵심사업과 연계된 직·간접 일자리 2,511개를 창출하였으며, 체험형 인턴 채용인원은 2017년 대비 242.3%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노사소통을 통해 비정규직 48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였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혁신기술 드론과 공공서비스 융합·고도화



공단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오염사고 대응, 해양생태계 관리,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혁신기술인 드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 드론 활용을 통해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에 소요되었던 시간을 313시간 단축하였고, 선박연료유 비용도 42백만 원을 절감하는 등 뛰어난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공단의 4차 산업혁명 우수기관 해양수산부장관상 수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양환경인프라 구축을 통한 해양환경 분야 역량 강화



공단은 미래에 대비하여 해양환경 분야 역량을 높이고자 인프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대형사고와 전천후 방제가 가능한 5천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를 추진 중이며, 연간 약 10만 건의 시료 분석이 가능한 해양환경조사 연구원이 준공되면서 해양생태계종합조사와 해양환경측정망 운영의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사고 저감

공단은 해양오염 원인별 맞춤형 해양오염예방을 위해 Two-track 예방관리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폭넓은 오염 원인 관리 활동과 더불어 깊이를 더한 부주의사고 예방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2018년 부주의로 인한 사고율을 3.3%p 저감 하였습니다.

해양예선 공익사업을 통한 해양안전 수호

공단은 전국 주요 항만에서 27척의 예선을 통해 선박의 안전한 이·접안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사고 구조·구난, 민·관·공 협업 체계 확대, 항만 비상사태 대응 등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해양 안전 강화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8년 23건의 해양사고 구조·구난조치 활동을 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 하였으며, 130건에 달하는 항행장애물을 제거하는 등 해양사고 발생 저감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윤리·인권경영 내재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 이행

윤리·인권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단은 올바른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윤리 경영 동향을 반영하여 윤리규범을 지속해서 개정하고, 매년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KOEM 인권의 날을 선포하여 인권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 이해관계자에게 전파하고,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인권 리스크를 조기에 파악하여 예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3년 연속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에 선정되었으며,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도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준의 공공기관 윤리·인권경영 선도

침몰선 잔존유 제거사업 추진

공단은 지난 2014년부터 해양사고로 침몰한 선박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위해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총 78척의 침몰선을 선별하여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총 26척의 침몰선에 대한 현장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2척의 침몰선을 대상으로 잔존유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잔존유가 확인된 1척에 대해 회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Company Profile

해양환경공단 소개

기관명 해양환경공단	
주무부처 해양수산부	
설립일 2008년 1월	
설립근거 해양관리법 제96조	
본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기관 소개

해양환경공단은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에 따라 2008년 1월에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단은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해양환경 보전, 해양오염 방제, 해양사업, 교육 훈련 및 연구개발, 국제협력 등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본사, 전국에 위치한 지사(12개), 사업소(13개), 해양환경교육원, 해양환경조사 연구원이 보유한 풍부한 인프라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양강국 실현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양 기후변화 대응 등 미래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일자리 창출 환경·인권·안전 등 사회적가치 실현과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국민지향적 공적서비스 중심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주요사업

공단은 해양환경 보전사업, 해양오염 방제사업, 해양사업, 교육·연구개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하여 해양강국 실현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침적폐기물 수거 • 오염퇴적물 정화 • 해양쓰레기대응센터 운영 • 해양부유쓰레기 수거 • 선박폐유 수거·처리 •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생태계 복원 •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 해양기후변화 대응 • 해양환경정보 통합시스템 운영 • 해양환경측정망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방사성물질 측정망 운영 • 해양생태계내 잔류성오염 물질 조사 • 해양환경 정도관리제도 운영 • 친환경 골재채취단지 관리 •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
해양오염 방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시간 방제 대응태세 구축 • 해양오염 사고 대응역량 강화 •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 침몰선박 관리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시아 해양환경 협력 및 국제 방제 네트워크 강화 • 해양환경 국제교육 및 개도국 지원 사업
해양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만예선 운영 • 특수선 운영 	교육·연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환경교육원 운영 •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운영 •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운영 •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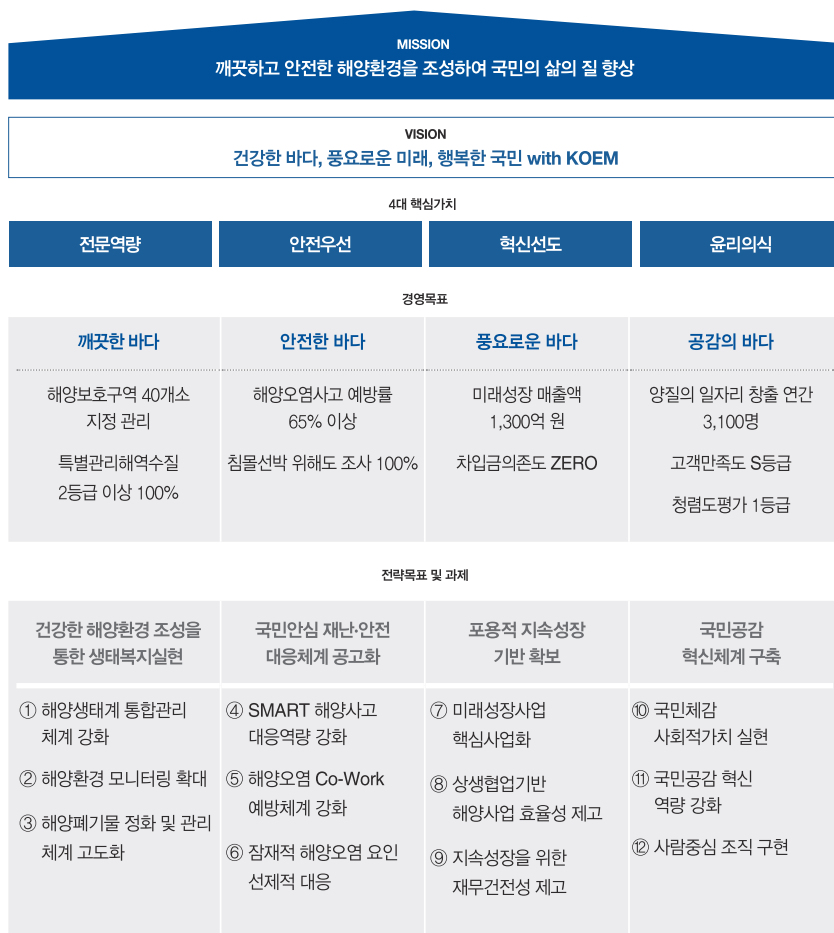
해양환경공단이 걸어온 길

1997	2007	2008	2010	2011	2012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 설립	허베이스피리트호 해양오염 사고 방제 조치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	해양환경교육원 개원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개소 해양환경측정망 및 해양생태계 조사 착수	국내 최초 해양환경조사선 아라미 1호 건조



경영전략

공단은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미션과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이라는 비전 아래 도전적인 경영목표, 전략목표,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경영목표에 따라 4대 전략목표와 12개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2013

준시장형 공기업 지정

2014

해양방사성물질감시센터 운영

2016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2017

해양수산부문 국가온실가스 통계 산정기관 지정

2018

해양환경공단으로 명칭 변경

2019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개원

KOEM Social Value

공단의 사회적가치

사회적가치 창출 체계

기업 운영에 있어 경제적가치에 더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회적가치 실현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기관에게 있어 사회적가치 실현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이 발의됨에 따라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공단만의 사회적가치를 정의하고, '국민과 함께 해양환경가치를 실현하는 KOEM'이라는 사회적가치 비전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가치 4대 전략방향에 따른 16대 전략과제를 설정하여 공단에 특화된 사회적가치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 4대 전략방향 및 16대 전략과제			
안심하고 향유하는 해양환경	함께하는 환경보전	가치있는 상생협력	실천하는 맑은 경영
해양환경 지속관리, 오염, 각종 사고 예방 및 적극 대응	대국민 해양환경 인식 개선 및 참여형 보전활동 추진	해양환경분야 일자리 창출 및 이해관계자 간 상생협력 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사회공헌 확대 및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 실천
해양생태 향유권 보장 유해물질로부터 안심 보장	오염물질 저감 노력으로 해양환경 건강성 회복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질 개선	취약 어촌계·민간 기피 항만 우선적 지원
해양오염 사전예방 및 안전 보장	주민 및 지역사회 중심 해양보전 활성화	협력업체 및 민간세력과의 상생협력·공정경쟁	내부역량·자산 활용 사회공헌 확대
해양사고 구조·구난 대응 강화 근로자 및 협력업체 안전 강화	해양환경 국민 인식 증대 및 참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문화 정착 인권존중 실천문화 확산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공단은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발간에 앞서 공단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습니다. 인터뷰를 통해 공단의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의견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Q&A

"해양환경공단이 현재 창출하고 있는 사회적가치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앞으로 집중해서 창출해야 할 사회적가치는 무엇일까요?"

김동령 위원장 | 공단은 용역사를 통한 파견인력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함으로써 용역사에 지불하던 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절감한 비용은 다시 정규직 전환자 처우개선에 활용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뤘내며 노사간 원활한 소통을 통해 육아 휴직 확대와 초과근무 단축을 필두로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간의 활발한 소통을 통해 임직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활동을 추진하고, 노사공동의 사회적가치 추구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나가길 희망합니다.

이계숙 위원장 | 공단은 해양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관리라고 생각되며, 이는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필요로 합니다. 이에 공단은 습지보호지역 관리 등에 있어 시민참여혁신단의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으며 해양환경보전에 관한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수렴 활동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통해 국민 모두가 해양환경 보전 활동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국민인식 증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활동들을 통해 해양환경보호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힘써주길 응원 합니다.

이형우 대표이사 | 한국선박기술은 선박설계 및 건조감리 전문업체로, 지난 25년간 23척의 예방선과 방제선을 공단에 납품하며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박이 사회적가치 창출에도 크게 기여함에 따라 양사의 동반성장의 의미는 더욱 큼니다. 2019년에는 공단과 함께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설계하였으며 건조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통해 악천후 속 해양오염사고의 대응이 보다 원활해질 것입니다. 또한 해양부유물 수거량의 증가, 화재 진압 능력 향상, 예인 등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통해 해양환경보전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과 같이, 상생 기반의 동반성장이 지속되어 방제선 건조에 일익을 담당하고 오염사고 대응에 일조하길 희망합니다.

한창희 소장 | 인권·윤리경영은 기업이 필히 이행해야 할 과제입니다. 정부 또한 인권·윤리경영을 중대한 과제로 인식하고, 공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에게 이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지속적으로 인권·윤리경영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체계를 수립하여 인권·윤리 리스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권·윤리경영은 완벽한 체계 확립과 더불어 내재화 활동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때 그 의미가 더욱 큼니다. 앞으로도 공단이 교육, 현장감사, 상담 등의 내재화 활동에 더욱 힘써 인권·윤리경영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되길 응원합니다.



김동령
해양환경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이계숙
경기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물다양성
위원회 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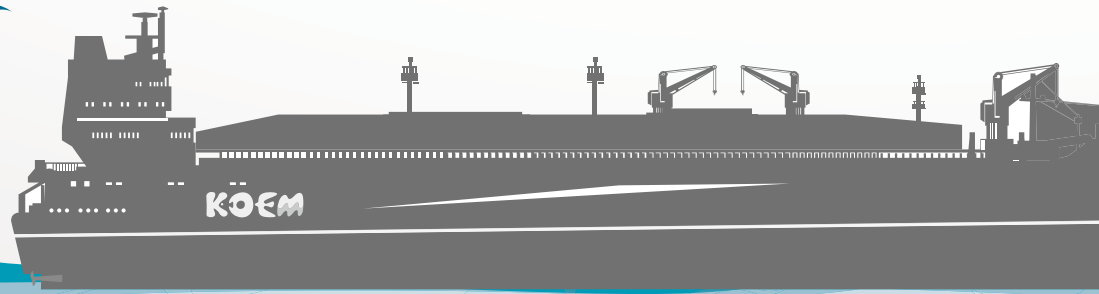
이형우
한국선박기술 대표이사



한창희
(사)EK유리지식연구소 소장

사회적가치 핵심성과지표

해양환경공단은 '안심하고 향유하는 해양환경', '함께하는 환경보전', '가치있는 상생협력', 실천하는 맑은 경영'을 공단의 4대 사회적가치 전략방향으로 설정하고, 기후변화, 해양오염, 일자리 부족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사업과 연계된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에 집중하여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높이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 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핵심성과지표에 따른 과거의 성과를 관리함과 동시에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의미있는 사회적가치를 창출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하고 향유하는 해양환경

모두가 안심하고 향유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양생태 향유권 보장, 유해물질로부터 안심 보장, 해양오염 사전예방 및 안전 보장, 해양사고 구조·구난 대응 강화 등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단위	2017	2018	2019 목표
해양보호구역 지정 ^①	개소수	28	28	29
해양보호생물 서식처 개선·복원 면적 확대	ha	12	17	18
해양보호생물 방류개체수 확대	마리	593	1,163	1,200
해양수질 개선 성과 ^②	점	52.7	57.3	70.9
방제교육훈련 횟수	회	604	621	630
해양사고 구조·구난조치	건	18	23	32

① 2018년 신안보호구역 2개소 통합, 보령시 소항사구 신규 1개소 지정

② 해역별로 달성해야 할 수질목표를 기준으로 특별관리해역의 수질평가 지수(WQI)를 산출하여 해양 환경 보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해양수질 개선 성과 지표

함께하는 환경보전

공단은 오염물질 저감노력을 통해 해양환경 건강성 회복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민과 지역사회 중심의 해양보전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해양환경보전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단위	2017	2018	2019 목표
선박폐유 수거량	톤	9,035	9,610	9,322
영세어민 선저폐수 무상수거 지원	톤	59	65	104
해양부유쓰레기 수거량	톤	4,280	4,551	4,489
영세어민 선저폐수 무상수거 지원	저장용기 수	43	44	54
어촌계 방제대응센터 건립·운영	개소	42	46	53
해양환경교육	명	67,518	70,276	72,000

해양보호구역 지정



28개

전년대비 2개 구역 ▲

양질의 일자리 창출



2,511명

전년대비 78명 ▲

선박폐유 수거



9,610톤

전년대비 575톤 ▲

부패방지 시책평가



우수 등급

전년과 동일

가치있는 상생협력

좋은 일자리 창출, 협력업체 및 민간세력과의 상생협력·공정경쟁, 지역경제 활성화·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가치있는 상생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단위	2017	2018	2019 목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명	2,433	2,511	2,542
선금지급률	%	39.6	43.2	50.0
유연근무제 활용률	%	74.9	85.5	90.0
채험형 인턴 채용인원	명	26	89	100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	백만 원	1,325	1,482	1,475
사회적 협동조합 생신품 구매	백만 원	63	54	55

실천하는 맑은 경영

인권존중 실천문화 확산, 균등한 기회 및 사회통합, 사회공헌 확대 등을 전략과제화하여 공정한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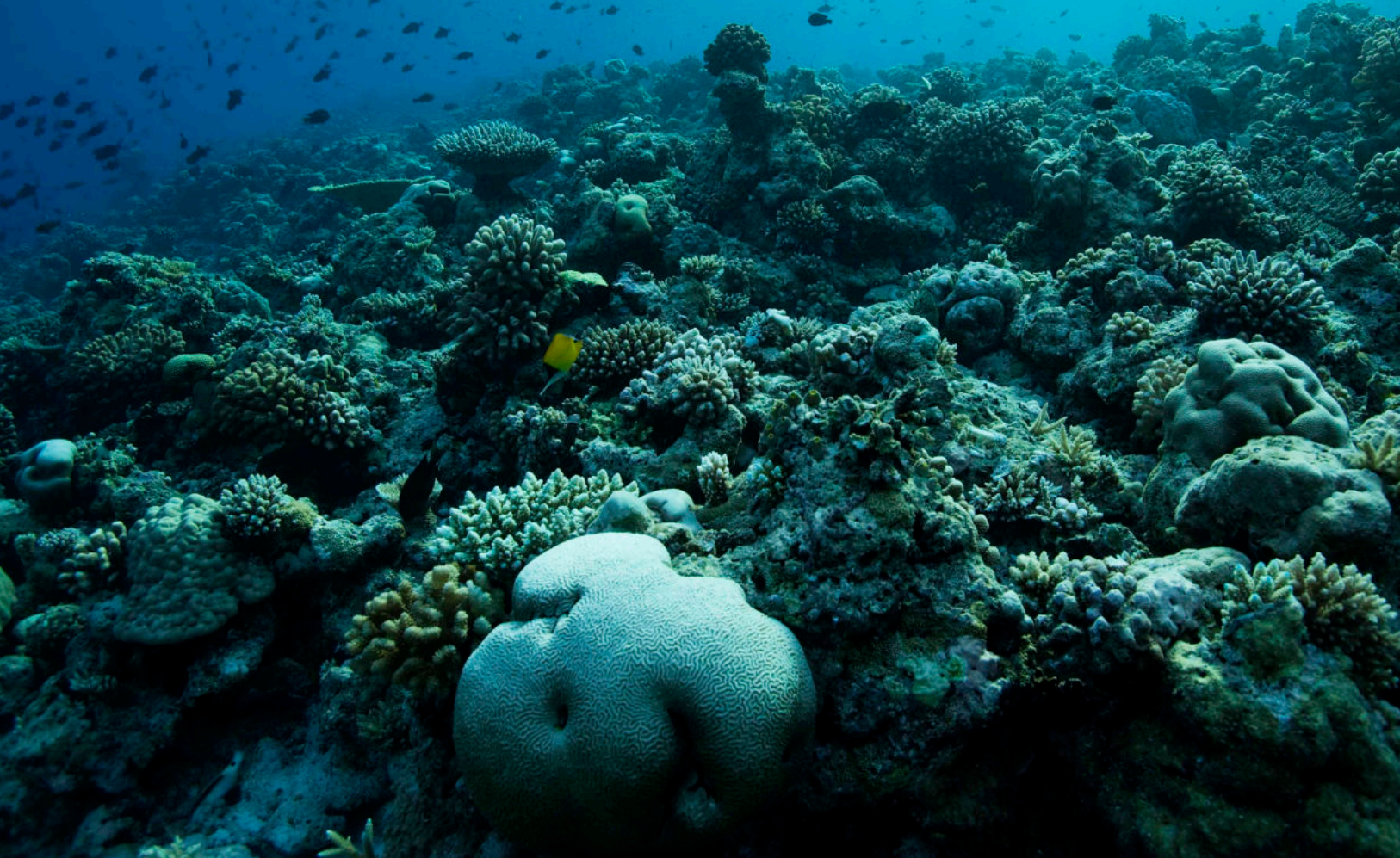
	단위	2017	2018	2019 목표
영세어민 대상 선저폐수 무상수거 용기 지원	개	43	44	54
교육원 시설 개방에 따른 이용자 수	명	487	791	870
사회공헌 금액	백만 원	48	45	50
장애인 고용 인원수	명	11	12	23
고객만족도	등급	A	A	S
부패방지 시책평가	등급	우수	우수	우수



Material Issue 01

함께하는 환경보전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생태계 보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푸른 바다를 깨끗하고 건강하게 지켜가겠습니다.



CONTEXT

해양환경 관련 정책과 규제가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의 배출규제와 'IMO 온실가스감축전략'과 같은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제3차 해양쓰레기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사전예방 중심의 해양환경 관리체계의 활동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연안오염총량 관리제 적용지역과 관리대상물질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기반 조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APPROACH

공단은 깨끗한 바다를 통해 우리의 삶과 미래가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해양환경 보전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양보호구역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해양대기환경 관리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친환경 골재채취단지 운영, 선박 등 폐유와 쓰레기 관리 등 여러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생태계 기반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18 PERFORMANCE



해양보호구역 지정
28 개소



해양보호구역 면적
1,777 km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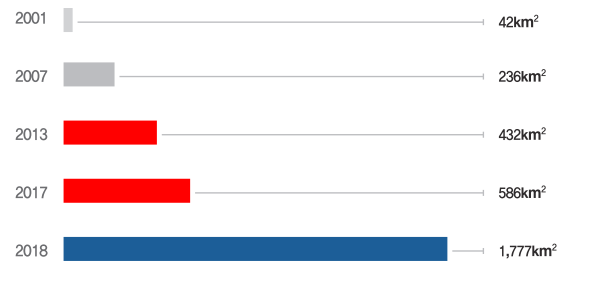
해양부유쓰레기 수거량
4,551 톤

미래에 대비한 해양보전 서비스

해양환경 관리 강화 및 범위 확대

해양보호구역 확대 공단은 2018년에 기존 해양보호구역 면적보다 3배 확대된 해양보호구역을 새롭게 통합·지정하였으며, 특히 서남해안 갯벌을 해양보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여 아시아 최초 갯벌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의 경관적 가치를 고려하는 해양경관보호구역에 소항사구 해역을 최초로 지정하며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해양보호구역 지정면적의 변화



해양대기환경 관리 강화 공단은 국가의 미세먼지 감축 노력에 발맞춰 해양대기환경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해양대기 종합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19년에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을 주도함으로써 해양대기환경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항만지역의 대기질 개선 계획 수립을 위한 대기측정자료 활용시스템 구축 등의 활동을 전개하여 더욱 체계적인 해양대기통합관리체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항만지역 대기오염 관리 대기오염은 주로 공장의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지만 항만지역에서도 대기오염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항만지역에서의 대기오염은 항만을 드나드는 선박, 화물을 하역하는 장비 등의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에 공단은 보유하고 있는 선박의 엔진성능 개선을 위해 친환경 신기술을 도입하였고 오염물질 배출을 저감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 엔진 연소 상태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불안전 연소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발생량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 공단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상쇄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의 운영을 위한 해양수산부 위탁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외부사업이란 배출권이 할당된 사업장의 사업경계 외부에서 수행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말합니다. 공단은 해양수산분야의 외부사업 추진을 위해 신청된 방법론에 대한 타당성평가와 사업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여 방법론을 개발하는 등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Best Practice

블루카본 사업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지구온난화, 해양산성화 등의 기후변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활동은 육지뿐만 아니라 해양에서도 실행되고 있습니다. 공단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블루카본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블루카본이란 갯벌, 짚피, 염생식물 등 연안에 서식하는 식물과 퇴적물에 저장되어 있는 탄소를 의미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연안생태계는 열대우림보다 단위면적당 2-3배 많은 탄소를 저장하고 있으며, 탄소 흡수 속도도 최대 50배나 높아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전 연안에서 블루카본 조사를 실시하여 신뢰할 만한 블루카본 정보체계 및 관리 방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전국으로 블루카본 조사지역을 확대하였고, 블루카본 산정 방법론



개발 및 흡수 잠재량 확인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우리나라보다 6배 이상 넓은 갯벌을 보유한 중국과 블루카본에 대한 연구 협력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국제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선정 해양에서의 이용·개발 수요가 점차 다양화·대형화되고 있기에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에 대한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다양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전문성을 갖춘 해양환경공단을 포함한 4개 기관이 해양공간 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 관련된 업무 전반을 향후 3년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공단은 해양공간계획·평가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며, 보유하고 있는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당 이용·개발 행위가 해양환경과 해상안전, 레저·관광, 수산업 등 다른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이용·개발 행위의 입지 적절성을 검토하는 지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공단은 권역별 해양공간 관리계획 수립·변경 과정에서 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특성에 대한 평가와 해양용도구역 설정에 대한 검토와 검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새롭게 시행되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주변국과의 국제협력 및 연구개발사업 발굴, 해양공간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업무도 함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해양환경조사 역량 강화



해양환경조사연구원 신설 효과적인 해양환경·해양생태계 관리를 위한 조사체계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2019년 공단은 해양환경 조사연구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연구원은 해양환경조사 기능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으로 국제표준인 ISO/IEC 17025를 충족하는 연구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민 니즈를 반영한 조사체계 개선 특별관리해역^①의 수질 개선에 대한 지역 어업인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공단은 목표수질 단계를 3등급에서 1·2등급으로 높이고 관리활동 빈도와 범위도 각 2배와 2.6배로 높였습니다. 또한 국민의 건강 보장을 위해 실시해 오던 해수, 해저퇴적물, 해양생물 내 잔류성오염물질 조사 측정 항목에 유기수은과 특별관리해역 오염연대기 조사를 추가하여 국민 위생안전 위협요인 해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해역 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축 정립 공단은 해양환경과 생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해역특성을 반영한 해양생태축^②을 설정하였습니다. 해역특성을 고려한 해양생태축 설정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된 것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큼니다. 갯벌하구축, 동해축, 기후변화대응축, 도서축, 회유축을 포함한 총 5개의 해양생태축(안)을 설정하였으며, 각 해양생태축의 관리지표·관리방안을 별도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해양생태축 설정(안)

갯벌하구축	동해축	기후변화대응축	도서축	회유축
MPA, UNESCO 세계문화유산 등 생물다양성 보전·관리	한류성 해양 생물들의 동해 남부 유입통로 보전·관리	해양생태계 구조 변화 1차 모니터링 해역 의 기능 보전·관리	남·동해 서식 해양생물 산란 및 공급처 보전·관리	해양보호생물 주요 회유로 보전·관리

신뢰있는 해양환경 진단

해양환경 진단 체계 강화 공단은 우리나라 연안·근해역의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양환경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 및 보전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본자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이기에 정확한 해양환경 진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공단은 2018년 국제 표준인 ISO/IEC 17025와 정도관리 규정을 반영한 해양환경측정망^③ 정도관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검증단계도 새롭게 추가하여 진단 분야의 공신력을 더욱 높였습니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방사성 물질 표준분석법을 개발하여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환경 공정시험 기준을 강화하고 생물 시료 정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진단 결과의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해양환경정책만족도
전년대비 1.7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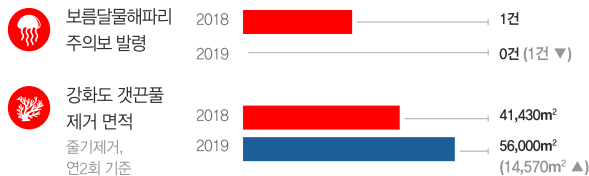


① 특별관리해역: 해양환경의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해역으로, 해양환경기준의 유지가 관련한 해역 또는 해양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
 ② 해양생태축: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을 통합적으로 보호·관리하고 해양생태계 구조 및 기능의 연속성을 유지·연결하기 위한 서식 공간
 ③ 해양환경측정망: 전국 연근해에 대한 해양환경 상태와 오염원 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모니터링

해양환경 복원 활동 추진

유해해양생물 제거 활동 전개 해파리의 대량발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파리는 독을 품고 있어 해수욕장의 피서객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어획물과 혼획되어 상품가치를 떨어뜨리고 어구를 손상시키는 등 어민에게도 재산적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해파리 대량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우리나라 연안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보름달물해파리 부착 유생 제거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해파리 부착유생 중장기 관리계획(2018-2022)에 따라 발견, 신고, 모니터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부착유생 대량서식지와 주변해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해파리 주의보 발령일수 저감·미발령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빠른 번식력과 적응력으로 염생식물과 패류의 서식처를 훼손하여 갯벌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갯끈풀 제거 활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갯끈풀 서식확인지역을 7개소로 확대하고 지역주민·유관기관과 함께 제거 작업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갯끈풀 확산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유해해양생물 제거 성과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공단은 지역사회의 니즈를 반영한 맞춤형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복원대상 지역을 대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각 지역을 위한 맞춤형 대응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은 해양환경보전은 물론 수산물 생산 증진, 생태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성장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갯벌생태계 복원

구분	활동 내용	복원면적	추진 성과
서천 유부도	지속가능한 갯벌 이용 및 복원	25,000m ²	· 해수유통 생태계 개선 · 생태관광지 조성
서산 고파도	청정 해역 유지	93,000m ²	· 해수유통 퇴적층 개선 · 갯벌소득 증대
보령 무창포	아열대화 감시 및 관광 활성화	350m ²	· 해수유통 수산물 증대 · 해수욕장 관광증대
서산 응도	어장환경 개선 및 활용 가치 증진	1,500m ²	· 갯벌 생물 다양성 증진 · 수산자원 증대 및 생태관광 활성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해양개선 서비스

해양폐기물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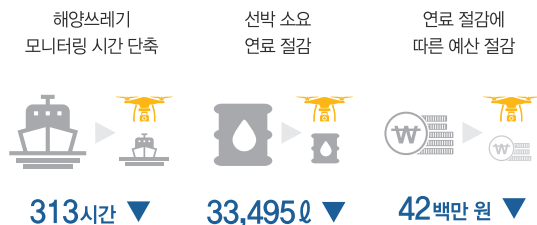
해양폐기물 관리체계 기반 확립 해양쓰레기, 해양미세플라스틱 등 국민의 생활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해양환경공단은 발생예방, 수거강화, 관리역량, 교육·홍보로 이어지는 해양폐기물 관리정책을 수립하여 2023년까지 쓰레기 현존량을 25% 낮추고 수거량은 20%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오염 발생원부터 관리하여 해양폐기물 수거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사후대응 활동이 아닌 전주기적 관점의 관리체계를 갖추었습니다. 더 나아가 해양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짐에 따라 해양폐기물 관리 역량을 갖춘 공단은 해양미세플라스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국내 최초로 해양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과학적인 모니터링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시범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플라스틱 제로화 캠페인, 해양쓰레기 되가져오기 캠페인 등 다양한 국민인식 증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빈틈없는 관리체계를 통해 건강한 해양가치를 보전해 나아가겠습니다.

Best Practice

드론 활용 확대

공단은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인 드론을 활용하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저수심, 근거리, 도서 지역에서의 순찰을 위해 드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해양쓰레기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안전 및 순찰해역 범위 측면에서 기존 선박 활용 모니터링 활동의 한계를 극복 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성과



오염퇴적물 정화 활동 전개

해역 특성을 고려한 오염퇴적물 정화 해양환경공단은 어류의 질병을 일으키고 생물 군집을 손실시키는 등 해양생태계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오염퇴적물^①을 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각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정화 활동을 전개하여 해양퇴적환경을 더욱 개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정화 활동을 실시한 장생포항의 유해화학물질 지수(CIHC)는 4.04에서 3.33으로 전년대비 17% 감소하였으며, 동빈내항에서는 11.26에서 6.89로 전년대비 39% 감소하였습니다.



▲ 선박을 활용한 오염퇴적물 정화 활동 실시

폐유 수거·처리 강화

선박 등 폐유 수거·처리 공단은 전국 13개 오염물질저장시설을 운영하여 선박과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유를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시설(장비) 신규교체·정비 등의 활동을 통해 공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소형어선의 선저폐수가 무단으로 바다에 방류되어 해양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도록 기름여과장치를 개발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선박 등의 폐유를 수거하는 버큘탱크로리 차량

폐유 수거·처리 능력 향상을 통한 수거 목표 달성 및 공적가치 강화



친환경 골재채취단지 운영

친환경적 골재채취단지 관리 공단은 남해 배타적 경제수역(EEZ)^②에 위치해 있는 골재채취단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단지에서

채취되는 모래는 건설공사의 기초재로 사용되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골재채취 단계에서 해양생태계가 훼손되고 수산자원이 감소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해양생태계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골재채취단지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용연구선을 활용하여 계절별 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채취구역을 업체별로 배분하여 한 지점에서의 집중채취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채취된 바다모래는 공공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불법채취·과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불시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어업인들과의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단계에서 주민공람 및 공청회를 개최하고, 계절별 현지조사 결과와 민관협의체 구성·운영 시 제기된 개선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정부와 어업인, 골재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소통을 유지하여 친환경적으로 골재채취단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함께하는 해양환경가치 공유서비스

대국민 참여 활성화

국민참여형 해양환경 보전가치 공유 활동 해양환경 보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대국민 참여 프로그램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대상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공익광고 송출, 해양보호생물 기념우표 발행, 인식증진 포스터 배포 등의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온라인 홍보, 해수욕장 대국민 홍보, 플립탐색 교육워크숍 등을 진행하여 유해해양생물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 인식을 증진시키고자 국민참여형 '국제연안정화의 날'을 추진하였고 어업인 및 낚시인 대상 맞춤형 교재를 개발·활용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해양보호생물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약 2배 상승하였으며, 국민참여 해양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대비 145.8% 증가하였습니다.

국민참여 해양쓰레기 수거량
2017년 대비 285톤 증가



① 오염퇴적물: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해 유해물질의 사용과 오폐수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각종 유해물질이 바다에 유입되고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가라앉아 쌓인 퇴적물

② 배타적 경제수역: 연안국이 자국해안으로부터 200해리 안에 있는 해양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국제해양법 상의 해역을 의미

해양환경교육 실시 공단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양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10월까지 초·중·고 학생 30,891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제공하였으며, 대학생을 대상으로는 해양 분야 취업역량 강화와 해양·환경 관련 자격증 취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장애학생, 도서벽지, 다문화 가정,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교육수요처를 추가적으로 발굴하여 2018년에는 총 2,958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협업을 통한 해양생태계 가치 보전

전문기관과의 협업 강화 공단은 전문기관과의 협업으로 해양보호생물 관리에 있어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2018년 수산자원 조성을 고려한 친환경복합시공을 통해 점박이물범을 위한 인공섬터를 백령도에 조성하였으며, 2019년 8월에는 약 20마리의 점박이물범이 인공섬터를 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점박이물범 개체수 회복과 서식환경 개선에 이바지하였으며, 백령도가 점박이물범의 국내 최대 서식지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인공증식기술을 개발·활용하여 갯게 1,000마리와 붉은말뚝게 500마리, 두이빨사각게 500마리, 남방방게 100마리를 방류하였으며, 특히 구조된 붉은바다거북 4마리, 푸른바다거북 3마리를 치료 후 방류에 성공하여 해양보호생물 개체수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여러 기관과의 전문성 협업을 통해 해양생태가치를 높여가겠습니다.



▲ 물범섬터 조감도

해양환경 국제협력

국가 해양환경 국제협력사업 수행 공단은 국가 해양외교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PEMSEA, NOWPAP, YSLME, COBSEA 등 국제기구·지역협의체에 대한 국가 대응방안 마련 및 한·중·일·러 환경협력 공동위원회, 한·일 해양환경교류협력회의 개최를 지원하여 국가간 해양환경 협력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한·중 공동위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해양쓰레기 공동 모니터링 연구' 지속 지원, '해양생태계 활용 온실가스 감축·관리기술 공동 개발'을 신규제안
한·일 공동위	'정기온항선박 이용 해양환경관측사업'을 신규제안
한·러 공동위	'정기여객선을 이용한 해양관측수행'(대기측정 포함) 및 '해양방사성물질 감시를 위한 공동연구' 지속 지원 '정기온항선박을 이용한 해양방사성물질 모니터링'을 신규제안
한·일 교류협력 회의	해양쓰레기, 해양방사능 조사, 선박평형수 관리협약 이행 등의 정책 교류, 신규사업 발굴협의

해양환경 분야 베트남 KOICA 공적원조사업(ODA) 베트남의 효율적 연안관리 능력과 해양오염사고 대비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환경분야 최초의 KOICA 사업이자 공단이 주관하는 사업이기에 그 의미는 더욱 큼니다. 총 350만 USD 규모의 공적원조사업은 2018년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진행되며, 수질자동측정소 설치·운영, 연안 관리, 오염방제 역량강화, 국가연안관리실행계획 작성, 환경민감도지도 개발 가이드라인 작성, 해양오염사고 위해도 평가 등과 관련된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수질자동측정망 2기를 현지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개도국 해양환경 개선사업 공단은 개도국 해양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국제협력 관계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환경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관리 역량강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와 연안 생태계 보전정책을, 2018년에는 연안침식 대응, 해양기후변화 탄력성·적응, 해양수질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3차 연도를 맞은 2019년에는 유류오염 대응, 해양쓰레기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9년부터 인도네시아에서 해양쓰레기 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지역 해양쓰레기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해양쓰레기 관련 이해관계자 역량 강화를 통해 인도네시아의 해양쓰레기 관리 능력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APEC 역내 해양쓰레기 주도권 확보 2018년 공단은 APEC 회원국 교육생을 대상으로 해양쓰레기 대응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회원국들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연구 활동을 공유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주도적으로 APEC 해양쓰레기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해양수산실무그룹으로부터 최종 승인받았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APEC 해양쓰레기 로드맵으로 업그레이드되어 APEC 정상회의의 선언문 부속서로 승인될 예정입니다.



Material Issue 02

안심하고 향유하는 해양환경

해양환경공단은 빈틈없는 방제체계를 구축하여 우리 바다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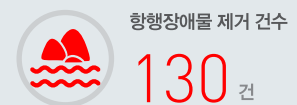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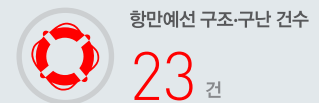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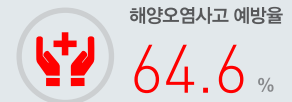
CONTEXT

해양은 일단 오염되고 나면 어떠한 방법으로도 단시간에 완벽하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오염물질을 유출시켜 바다를 오염시키고, 어민을 포함한 지역주민에게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힙니다. 2018년에도 세계 유수의 해운회사에서 화재사고, 충돌사고 등 여러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APPROACH

공단은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적 오염원인별 사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연안여객선, 뉴시어선 등 소형선박의 부주의 해양오염사고를 감소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한 인프라 강화 및 방제훈련을 통해 방제역량을 끊임없이 높이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잔존유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는 침몰선박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여 안심하고 향유하는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8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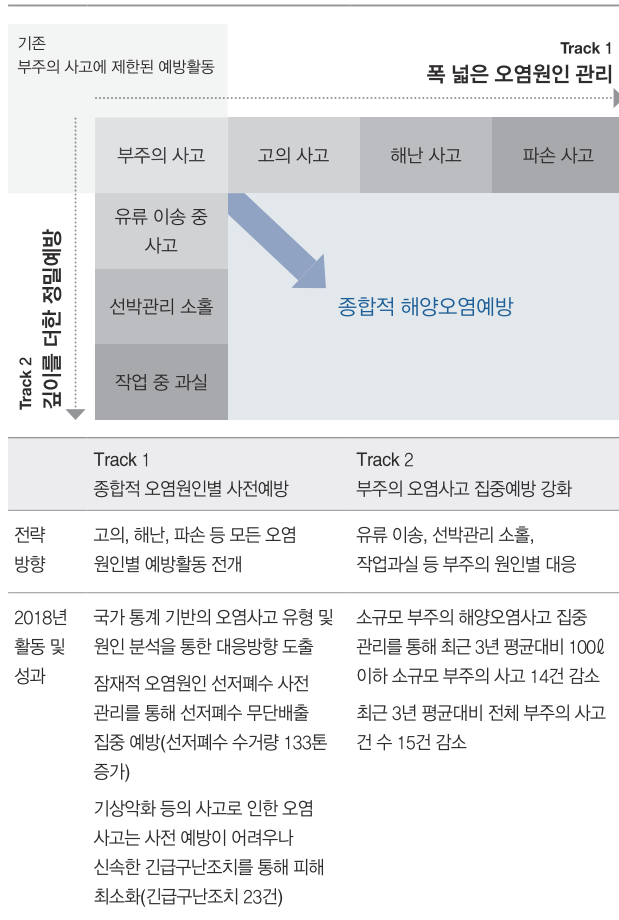


해양오염사고 예방

해양오염사고 저감을 위한 체계 마련

Two-track 전략 구축 공단은 해양오염 원인별 정밀한 해양오염 예방을 위해 Two-track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wo-track 전략에 따라 폭 넓은 오염원인 관리를 통해 종합적 오염원인별 사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기존 부주의 사고예방 활동에서 깊이를 더한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부주의로 인한 오염사고를 집중적으로 예방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Two-track 전략



오염예방을 위한 내외부 추진조직 강화 2018년 공단은 해양오염예방 전담조직인 해양오염예방팀을 신설하여 오염예방 체계의 기반을 더욱 다졌습니다. 또한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선박종사자, 수협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어선사고예방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오염예방을 위한 협력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오염사고 대비와 대응

해양오염사고 대비 역량 강화

방제인프라 운용 방향 개선 공단의 해양방제 활동은 해상방제와 해안 방제로 구분됩니다. 한정된 방제분담금으로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해상과 해안방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해상방제 능력에 있어 국가 해상기름 회수목표치를 충족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에 양적 신규장비 확보보다는 선박 엔진성능 개선 등을 통해 보유한 장비의 질적 성능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해안방제 능력의 경우 해안·도서지역 오염사고 증가함에 따라 신속 초동조치 태세를 갖추기 위해 긴급 방제차량과 드론을 새롭게 확보하였으며, 수심이 낮은 해안선까지 접근하여 방제조치가 가능한 전용방제선 및 작업선을 추가로 확충하였습니다.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 설계 추진 우리나라가 보유한 방제선은 대부분 500톤급 미만의 중소형 선박으로 외해에서의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초동대응에 어려움이 있고 오염물질 저장탱크 용량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2019년 8월 5,000톤급 다목적 대형 방제선(길이 102m, 폭 20.6m) 설계를 마쳤으며 11월 5일 건조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년 5월 31일에 건조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목적 대형방제선은 악천후 시 또는 먼 바다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호퍼준설, 대형 해양부유물 수거 및 타선 소화, 비상 예인 기능 등 복합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최첨단 다목적 재난 대응선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건조될 예정입니다.



구분	기존 방제선(20~400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
유회수 용량	약 20 ~ 200㎏/h	720 ~ 1,440㎏/h
작업 파고	1.5m 이내	3m 이내
작업 구역	항만 및 연안해역	연근해 가능
회수유 저장탱크	약 5 ~ 50㎔ 규모	약 5,100㎔(전용탱크 및 준설토장 활용)

방제훈련 확대 실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합동훈련 실시 해양환경공단은 이해관계자 별 맞춤형 합동훈련을 통하여 초동조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방제서비스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위험 대상 및 대규모 사고 발생 요인 중심으로 훈련을 확대하였으며, 어민·어촌계 의견을 청취하여 설치된 방제대응센터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북태평양 인접 국가 합동훈련(MMEX)에 참가하여 6개국과 함께 해상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훈련 활동은 실제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기름 유출량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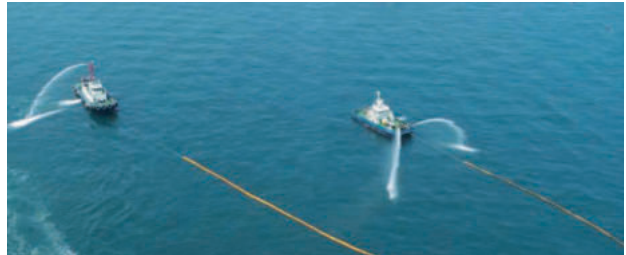
시나리오 기반 방제훈련을 통한 오염사고 대응력 제고

구분	훈련 연계 방제조치 실적	추진 성과
마산 기름유출 사고	훈련내용 기름저장시설 맞춤형 시나리오 방제훈련 실시 사고 발생 및 대응 육상 우수관로 오일펜스 전장 및 유회수 등의 해양유입 차단	유출량 7.9kℓ 전체유출 295.0kℓ
군산 선박침수 기름유출 사고	훈련내용 선박 침수유형 대응 시나리오 방제훈련 실시 사고 발생 및 대응 유출유 초동방제 및 신속 인양, 유류이적 지원	유출량 20.2kℓ 유류적재량 55.0kℓ
제주 선체파괴 사고	훈련내용 유조선에 대한 맞춤형 시나리오 방제훈련 실시 사고 발생 및 대응 방제조치 및 유류이적	유출량 3.6kℓ 유류적재량 3,200.0kℓ
부산 선박침몰 사고	훈련내용 부산해역의 특성을 고려한 시나리오 방제훈련 실시 사고 발생 및 대응 신속한 초동조치	유출량 12.9kℓ 유류적재량 40.2kℓ

방제 조치

방제 프로세스 공단의 방제 활동은 사고 발생, 사고 접수, 연락(공단 본사, 유관기관), 방제 조치, 사후 조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방제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됩니다. 오염행위자 또는 발견자가 해양환경공단 또는 협력기관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고상태, 유출정보, 기상정보 등의 현황 파악을 실시합니다. 이후 관계기관에 연락을 하고 선박·인력 출동, 해경 방제 요청, 폐기물 처리 등의 방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 방제 작업에 대한 개선점 발굴 등 사후 조치도 함께 실시하여 방제 조치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8년에는 총 89건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성공적으로 방제 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방제조치 실적
2017년 대비 6건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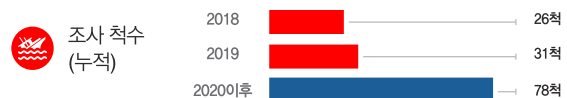
▲ 공단-한국석유공사 합동방제훈련 실시

방제장비 개발 및 개선 공단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방제 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제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고현장에 출동 시 오일펜스를 사용하여 유출유 확산을 차단하고 있으며, 유흡착제, 유회수기, 유처리제를 사용하여 유출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성이 복잡하고 부피가 크며, 중량이 무거워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던 기존 유압식 유회수기의 단점을 극복한 전기 구동 자항식 유회수기(KOSED 65)를 개발하여 방제 활동의 효율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전기 구동 자항식 유회수기의 경우 유압계통 설비를 필요로 하지 않아 사용이 더욱 간편해졌으며, 무게도 약 300kg으로 기존 공단에서 사용하였던 유압식 유회수기 대비 매우 가벼워졌습니다. 현재 공단은 무선 조종이 가능한 컨베이어 벨트식 유회수기를 연구·개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방제장비 개발·개선에 힘써 해양 오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몰선박 관리 강화

침몰선박 위해도 평가 선박이 바다 아래로 침몰하면 기름과 화물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해양오염을 일으키는 요소가 됩니다. 2018년 12월 기준 우리나라 해역에는 총 2,199척의 침몰 선박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현장조사가 필요한 침몰 선박 78척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으며,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26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습니다. 현장조사 결과 잔존유 제거가 필요한 9척을 파악하였고, 2척의 침몰선박 제7해성호와 제현호를 대상으로 잔존유 확인작업을 실시하여 잔존유가 확인된 제현호에 대한 회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관리대상 침몰선박 78척에 대한 현장조사를 2023년까지 마치고, 철저한 침몰선박 관리를 위해 이미 조사를 마친 침몰선박을 대상으로 위해도 평가를 다시 실시하여 필요시 조사 대상 선박을 추가적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침몰선박 현장조사 실시 현황 및 계획



공익을 위한 해양사업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기반 강화

해양안전 추진전략 도출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해양안전을 위한 해양환경공단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은 해양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해 해양 사고 대응, 해양사고 예방, 유관기관 협업, 안전문화 확산으로 이루어진 4대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해양안전 확보 활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해양안전 추진전략

해양사고 대응	해양사고 예방	유관기관 협업	안전문화 확산
사고 발생 시 예방 선 적시 투입 및 조치	통항로 안전을 저해하는 위험요소 제거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대국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정착

해양사고 유발 항행장애물 제거



구조·구난기능 강화 공단은 긴급출동·긴급구난 상황별 대응 절차 마련, 협업기관과의 공조사항·행정서식 구비 등을 통해 구난업무 대응 매뉴얼을 정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구난 대응 매뉴얼을 반영한 구난업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양사고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상구난, 수중구난 등으로 해양사고를 구분하여 해양사고 유형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MOU 체결 및 구난기관 간담회를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특수선박 긴급구난을 위한 안전관리체계(ISM) 인증 선박을 7척으로 확대하였으며 교육대상자도 확대하여 각종 선박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재난대응기관으로서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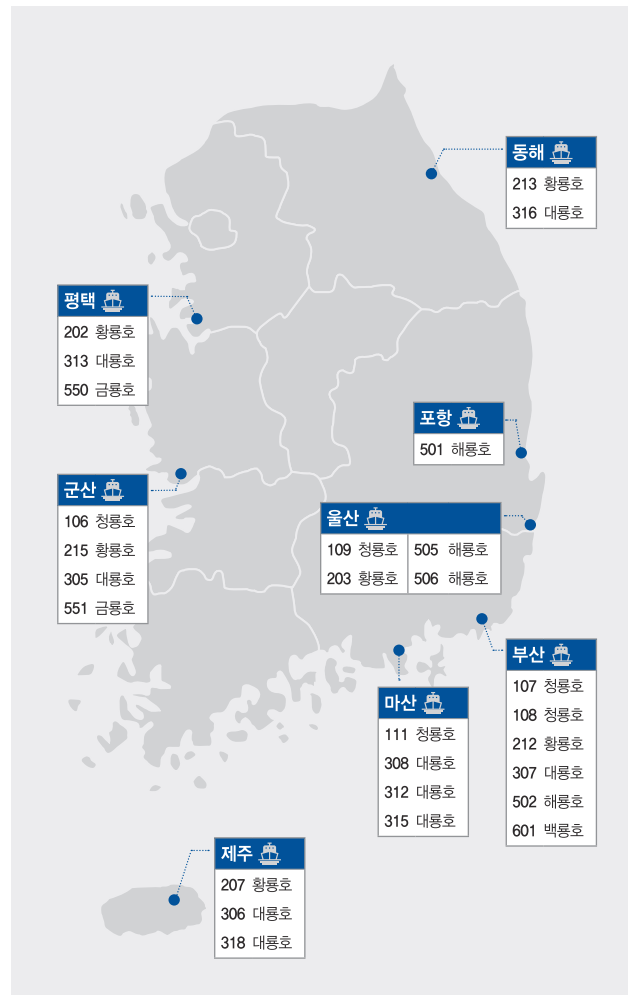
해양사고 구조·구난



공공재 기능 강화

항만예선 사각지대 해소 공단은 전국 주요 8개 항만에서 27척의 예선을 운영하여 선박의 아·접안 예인 업무와 국가 기간산업을 지원하고, 해난 사고 발생 시에도 신속하게 출동하여 해양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공단의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항만예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선서비스를 공급하였습니다. 2018년 삼척항 민간예선업체 파업 시 332회에 걸쳐 예선을 공급하여 물류대란을 방지하였으며, 옥계항 화물선 전용예선 상가수리로 예선 지원이 필요하였을 때도 수리 기간 동안 예선을 지원하여 물류기능 유지와 정상화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사업성 부족으로 인해 민간업체가 기피하는 항만에 정기화물선 전담 예선을 배치·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국내 항만 예선 공급에 있어 공백이 발생할 시 공공재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예선사업을 위한 선박배치 현황





Material Issue 03

실천하는 맑은 경영

해양환경공단은 실천하는 맑은 경영을 기반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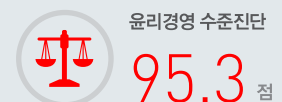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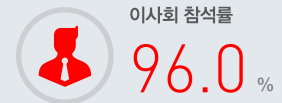
CONTEXT

경영 활동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기업은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며 시장 퇴출이라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또한 인권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이슈는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DJSI, EcoVadis 등의 글로벌 평가지표에도 반영되어 기업의 지배구조, 윤리경영, 인권경영을 중요히 다루고 있습니다.

APPROACH

공단은 임직원과 함께하는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람이 우선인 인권경영 실현을 위해 전략체계 및 조직을 개선·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리경영 실현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반을 다지는 차원에서 다양한 윤리경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 PERFORM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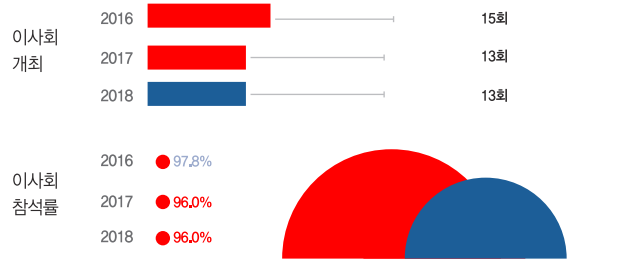


건전한 지배구조 구현

이사회 운영 및 구성

이사회 운영 이사회는 공단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관련 법령과 정관, 이사회의 운영규정에서 정한 공단의 주요 경영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의 1/3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되며, 이사 중 이사회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개최실적, 주요 의결사항, 회의록 등을 비롯한 이사회 전반에 대한 정보는 홈페이지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운영 현황



2018년 이사회 운영 실적

회차	개최일자	상정안건
1	01.17	2018년도 예산 운영계획(안) 외 3건
2	02.26	2017년도 이월예산(안) 외 6건
3	03.21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4	04.18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
5	04.23	정관 일부개정(안) 외 1건
6	05.16	2018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7	06.20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외 4건
8	07.18	2018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4건
9	08.22	2018년도 제7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5건
10	09.19	2018년도 제8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3건
11	10.17	중장기(2019~2023년) 경영목표 수립(안) 외 3건
12	11.21	2018년 예산 전용(안) 외 2건
13	12.19	2019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외 5건

이사회 구성 2019년 10월 기준 공단의 이사회는 상임이사 4명과 비상임이사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의장은 해양환경공단 이사장이며, 이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여

이사회 내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경영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 현황

구분	성명	소속	직책	선임일
상임 이사	박승기	해양환경공단	이사장	2018.02.12
	김희갑	해양환경공단	경영관리본부장	2019.04.29
	정상윤	해양환경공단	해양보전본부장	2018.12.18
비상임 이사	김경수	해양환경공단	해양방제본부장	2018.07.25
	사명환	前 대한석유협회	상무	2018.03.05
	오순애	한국동물복지표준협회	이사	2018.08.30
	이현모	前 대통령경호실	부장	2018.08.30
	박은경	주성세무회계사무소	대표 회계사	2019.04.30
	안자옥	前 한국자산평가	감사	2019.04.30

2019년 10월 기준

이사회 성과 평가 및 보수 이사회 운영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를 토대로 평가됩니다. 이사장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있으며 공단의 경영성과, 주무기관의 장과 체결한 계약 내용과 이행 수준, 기획재정부장관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정하는 보수지침을 고려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는 기본 연봉을 기반으로 이사장과 체결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비상임이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적정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보수 관련 내용은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시스템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이사회 운영

비상임이사의 참여 확대 2018년 이사회 내 비상임이사의 평균 참석률은 95.0%이었으며 발언 비중은 전체 발언의 64.7%이었습니다. 또한 비상임이사의 참여도와 더불어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해 내부 임직원과의 소통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를 경영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위원으로 임명하여 임직원의 경영혁신성과에 대해 직접 청취하고 제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사회 소통방을 게시판 형식으로 신설하고 비상임이사 주요 발언을 임직원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 참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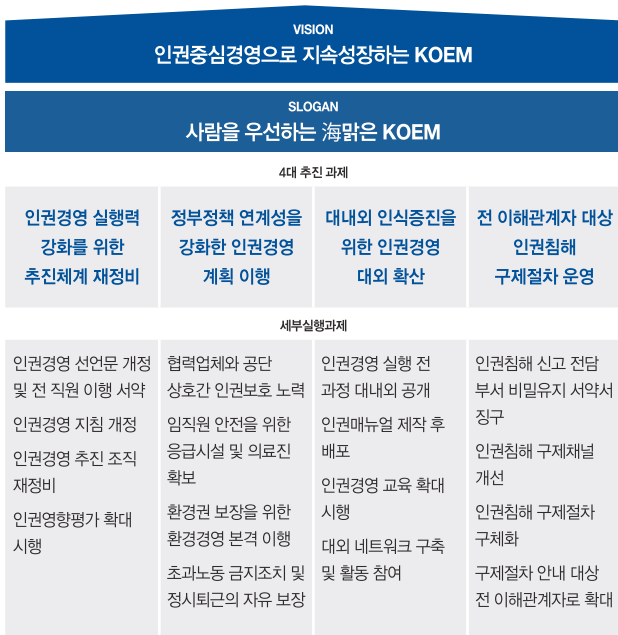
비상임이사 발언 비중



사람이 우선인 인권경영 실천

인권경영체계 구축

인권경영 전략체계 해양환경공단은 사람 중심의 인권경영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인권경영 전략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권중심경영으로 지속성장하는 KOEM’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과제를 정립하고, 이에 따른 세부실행과제 16개도 수립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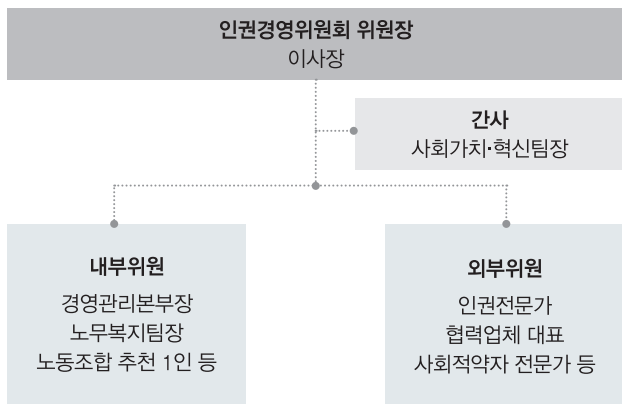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는 인권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이 사업 관계의 결과 또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단은 경영활동 중 인권 관련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분야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매년 기관운영과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공단 특성에 맞는 인권영향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리스크를 식별하고 있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 인권보호 증진, 강제노동 금지, 직원 안전 확보 등 다양한 과제를 도출하여 인권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추진조직 공단의 인권경영은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권경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실천되고 있습니다. 공단 인권경영

위원회는 위원장인 이사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경영관리본부장, 노무복지팀장, 노동조합이 추천한 1인 등으로 구성된 내부위원과 인권전문가, 협력업체 대표, 사회적약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권경영 전담팀을 총괄부서로 지정하고 고용상의 비차별, 강제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소비자 인권 보호 등을 포함한 10개의 인권 분야별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인권경영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인권경영 문화 확산

경영진 솔선수범을 통한 인권경영 확산 공단의 인권경영은 기관장의 강력한 인권경영 실천 의지와 함께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취임사를 통해 인권경영 추진 의지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였으며 ‘KOEM 인권의 날’을 지정·개최하여 인권선언문 공표 등 인권경영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인권존중 의식을 확산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이 솔선수범하며 공단의 인권중심경영을 더욱 고도화하고, 더 나아가 글로벌 인권경영을 선도하는 공단으로 성장하겠습니다.



▲ KOEM 인권경영 선포식 및 인권경영 특강

인권교육 실시 2018년 ‘KOEM 인권의 날’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에 대한 임직원 인식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인권

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기업인권 감수성 향상교육, 인권경영시스템 체계 구축 교육, 신입직원 대상 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친 공공기관 인권증진 워크숍과 인권경영포럼 등 외부 인권 관련 활동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며 역량 강화는 물론 인권 동향 파악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도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임직원 인식을 제고함과 동시에 인권존중 문화를 내재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인권침해 의견 수렴·신고·상담 채널 운영 공단은 인권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인권경영책임관을 지정하는 등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맞춤형 신고채널과 상담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침해 신고 전담부서는

인권침해신고에 대한 비밀유지 서약을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사 및 근로 고충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EAP 프로그램, 직장내 괴롭힘 신고센터 등을 운영 중이며, 기관장이 주도하는 런치토크를 통해 전 직원 대상 고충 면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현황 파악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단은 '갑질근절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갑질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실장 주관 갑질근절 교육과 면담을 수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협력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모든 입찰 시 갑질신고센터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권경영 선언문

우리는 국내 유일의 해양환경 전문기관으로서 우리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어떠한 인권침해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인권경영 선언문을 선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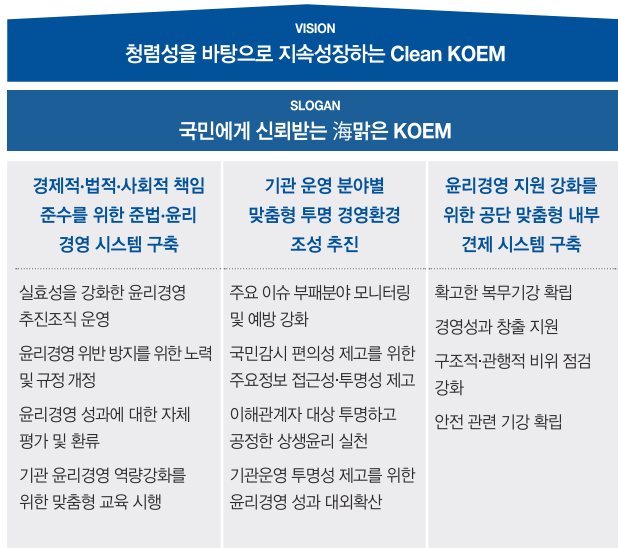
- 하나. 우리는 UN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하여 인권에 대한 국내·외 기준과 규범을 지지하고 준수한다.
- 하나. 우리는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고용 상의 차별을 두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하며 단체교섭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행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도 이용하지 않으며, 그로 인한 영업적 이득을 얻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하고,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 적절히 보상, 조치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회사가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예방적 차원에서 환경경영을 실천하고 관련된 정보를 공개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으로 인해 국민의 보건과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우리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권경영을 실천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청렴한 윤리경영 실현

윤리경영체계 확립

윤리경영 추진 전략 해양환경공단은 청렴한 윤리경영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 자세를 갖추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도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렴성을 바탕으로 지속성장하는 Clean KOEM'이라는 비전과 '국민에게 신뢰받는 海맑은 KOEM'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략과제 및 세부실행과제를 설정하여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부패방지 시책평가



윤리경영 추진 조직 체계적인 윤리경영 추진을 위해 기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경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가치·혁신팀과 감사실을 중심으로 윤리경영 실무단과 반부패청렴 추진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실무단은 관리 분야에 따라 담당팀을 지정하여 각 분야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전사 윤리경영 모니터링, 교육, 홍보를 담당하는 청렴윤리TF팀, 부패취약분야별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청렴실천리더(예산), 청렴메이트(인사), 청렴파인더(현장), 밀레니얼 세대 위주의 신입사원으로 구성된 청해인(청렴동아리) 등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추진 조직을 운영하여 청렴 윤리 문화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추진체계도



청렴 윤리문화 확산

윤리경영 가이드북 배포 반부패를 포함한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윤리경영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임직원에게 배포하였습니다. 윤리경영 가이드북은 윤리경영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설명 및 주요 판례, 신고 안내, 행동강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임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을 통한 청렴한 조직 문화 구현에 이바지하였습니다.

윤리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공단은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리경영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임직원 스스로 윤리의식에 대해 진단할 수 있도록 윤리실천지수(KOEM-BEX)를 개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하위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관련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부패 사건 발생 시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를 모든 직원이 기관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청렴마일리지제도 운영을 통해 임직원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입사원의 올바른 윤리관 확립을 위한 윤리후견인제도, 협력업체와의 상호간 인권보호를 위한 협력업체 인권보호 실천서약, 갑질 예방을 위한

갑질 없는 KOEM 서로이해 프로젝트, 국민 참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개선하기 위한 청렴시민감사관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윤리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2018년 윤리경영 수준진단 결과
전년대비 1.5점 상승



주요 윤리경영 프로그램

구분	주요 내용
윤리후견인제도	신입사원의 초기 올바른 윤리관 확립을 위해 윤리후견인을 매칭하여 윤리 기본소양, 윤리문제 상담 및 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한 번의 금품·향응수수만으로도 부패행위자는 적발 즉시 해임 이상의 징계로 엄정히 조치하여 공직사회에서 완전 퇴출시키는 제도
윤리경영 수준진단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공단 윤리실천지수(KOEM-BEX)를 활용한 윤리수준 진단 및 미흡분야의 제도를 지속 개선
청렴윤리의 날	공단의 반부패 의지를 확산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널리 알리고자 주요 외부고객을 대상으로 청렴서약 시행
청렴마일리지제도	청렴교육 이수, 청렴아이디어 제시 등 임직원의 청렴관련 활동에 일정한 청렴 마일리지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기준으로 평가·보상하는 제도
청렴시민감사관	국민 참여를 통해 업무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불합리한 제도, 관행 및 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개선 추진
갑질 없는 KOEM 서로이해 프로젝트	부당지시 및 갑질징계예고제 실시를 통한 갑질 예방과 제도, 문화, 인프라 측면에서의 갑질 없는 공단을 만들기 위한 개선 활동 추진
청렴계약 실천캠페인	청렴계약 실천캠페인을 통해 계약체결 시 비대면 원칙, 청렴 미란다 원칙, 클린타임 준수, 청렴준공확인서 시행
KOEM 청렴인증제	청렴윤리 롤모델 선발 및 청렴활동, 청렴아이디어 및 콘텐츠 공모전을 종합 평가하여 청렴 우수부서 대상 'KOEM 청렴인증제' 도입
개방형 청렴시스템	청렴·윤리 감성메시지, 카드뉴스 등을 포함한 영상 학습 콘텐츠와 청렴 콘텐츠 공모전과 같은 참여형 커뮤니티 운영
협력업체	공단과 협력업체 상호간 인권보호 노력을 위해 계약 이행시 근로자 인권보호 실천서약 인권보호 상호 실천 서약서 작성·이행

신고 채널 운영 공단은 부당지시, 위법부당 예산집행 등과 관련된 내·외부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부신고 채널로는 '원클릭 부당지시 신고센터', '금품 등 반환신고센터', '청탁등록시스템', '임직원 행동강령 상담센터'가 있으며, 외부신고 채널로는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 '예산낭비 신고센터',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클린 신고'가 있습니다. 접수되는 모든 신고는 신고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신고 활성화를 통한 청렴 윤리문화 확산을 위해 익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신고채널

구분	신고채널	주요내용	목적
내부	내부공익익명신고	부당한 업무지시 등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등 반부패 청렴문화 조성
	금품 등 반환신고센터	금품 등의 수수	외부의 유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
	청탁등록시스템	알선, 청탁	청탁 등록을 통한 알선·청탁 사전 차단
	임직원 행동강령 상담센터	행동강령 위반사항	임직원 비리신고
외부	청렴시민감사관 핫라인	임직원 비위행위, 금품 수수	독립성을 갖춘 외부인에게 공단 비위행위 신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공단 수행업무관련 예산낭비	국가재정 누수 차단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센터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 사항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차단
	클린 신고	대면접촉, 외부강의·회의 등	임직원 비리신고
	직장내괴롭힘 신고	부당한 업무지시 및 근무환경 악화 행위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지시 근절 및 근무환경 개선
	성희롱·성폭력 신고	성희롱·성폭력 행위	공단 활동 범위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청렴윤리 교육 프로그램 공단은 임직원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렴윤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18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총 교육시간은 9,435시간이었으며 교육 이수자 수는 5,170명이었습니다. 공단의 주요 청렴윤리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CEO 청렴 특강', '감사실 주관 청렴 교육', '부서장 주관 청렴 교육', '외부전문기관 청렴 교육', '사이버 청렴 과정'이 있습니다.

주요 교육 프로그램

교육명	횟수	이수자	교육 시간
CEO 청렴 특강	3	169	161
감사실 주관 청렴 교육	52	1,157	2,169
부서장 주관 청렴 교육	481	3,411	4,252
외부전문기관 청렴 교육	9	14	121
사이버 청렴 과정	14	419	2,732



▲ 공단 반부패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기관장 청렴특강



Material Issue 04

가치있는 상생협력

해양환경공단은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한 상생협력을 전사적 차원에서 추구합니다.
이해관계자와 공익적 가치를 나누기 위해 소통과 개선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CONTEXT

사회적가치 기본법안을 비롯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창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가치의 근본은 '모두가 함께 잘살기 위한 상생'입니다. 그리고 이 상생은 국정과제의 5대 목표 중 하나인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비롯한 전략들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중소 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 등 국정전략과 그 세부 과제들을 통해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APPROACH

공단은 사업을 통한 이해관계자 다수의 공익적 가치 창출을 상생의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공단 내부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해양 분야의 일자리 지원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사회적 경제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와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여 동반성장을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2018 PERFORMANCE



일자리 창출
2,511 명



협력업체 직원 대상
EAP 실시
40 회



교육원 시설개방 이용객
791 명

좋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

국민희망 일자리 추진 체계 공단은 국민희망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하여 일자리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4대 전략방향 12개 전략과제 그리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실행력 강화를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추진 조직을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추진부서를 지정하여 일자리 창출 업무를 이행하였으나 현재는 사회적가치 총괄 부서를 신설하고 일자리 창출을 전담 이행하여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일자리추진단을 공공일자리 뿐만 아니라 민간일자리까지 총괄할 수 있도록 추진단을 확대·구성하여 전사적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VISION 국민희망 일자리 창출을 통한 해양환경산업 품순환 선도			
GOAL '19년 목표 : 일자리 창출 연간 2,542명 → '23년 목표 : 일자리 창출 연간 2,771명			
일자리 중심경영체계 강화	공공부문일자리 나누기 실현	민간일자리 생태계 지원	일자리 창출 혁신성 제고
국민희망 일자리 추진 단 운영강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해양환경분야 투자 확대 추진	해양환경 신성장 분야 기술혁신
합리적 정현원차 관리 추진	청년 맞춤형 일자리 프로그램 확대	KOEM 고용영향 평가제도 도입	해양분야 좋은 일자리 창출 협업
대국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공공부문 일자리 나누기 추진	사회형평적 일자리 창출 작·간접 지원	해운일자리 플랫폼 역할 강화
일자리 추진전략 수립 정원 대비 현원 비율	정규직 전환율 공공부문 신규일자리	민간 일자리 창출 실적 민간 일자리 질 제고	일자리 창출 혁신성과 일자리 창출 협력실적

중장기 로드맵		
도입기('18년)	성장기('19~'20년)	성숙기('21~'23년)
일자리 창출기반 조성 목표: 2,487명	공공·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목표: 2,597명	일자리 창출 고도화 목표: 2,771명
추진체계 구축 및 공감대 형성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완료 민간부문 지원체계 마련	일자리 혁신모델 발굴 탄력정원제 도입·운영 해양환경분야 투자 확대	일자리 연계 사회적가치 실현 일자리 우수사례 공유·확산 사회형평적 일자리 나누기 확산
MONITORING 국민희망 일자리 추진단 / 일자리창출 전담부서 / 국민 / 외부전문가 등		
경영전략 워크숍 CEO 주관 주간회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정규직 전환 협의회	일자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비정규직 실태조사 시스템
EIS	K-TOP	국민희망 일자리센터

일자리 창출 실행조직 확대 공단은 이사장 직속의 전담 일자리 창출 실행조직을 2개 분과·5개팀으로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지원부서, 사업부서 등 다양한 부서를 일자리 추진단으로 구성하여 전사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조직체계

KOEM 국민희망 일자리 추진단				
공공 일자리 분과		민간 일자리 분과		
정규직 전환 추진팀	신규 일자리 창출팀	해양보전 일자리팀	해양방제 일자리팀	해양사업 일자리팀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공단은 일자리 추진체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혁신단을 통해 공단이 본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 창출 의견을 반영하여 해양환경분야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청년자문단을 통해서도 청년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여 일자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청취하여 체험형 청년 인턴을 확대 채용합니다. 젊은 실무자들로 이루어진 주니어보드와는 공단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유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해운분야 일자리 확대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청년·임직원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노·사간 소통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사 및 보수제도 개선·조직문화 혁신·사회적가치 확산의 노사공동목표를 설정하고 노·사 공동으로 구성된 국민희망일자리 추진단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일자리 나누기 활동 전개 공단은 다양한 근로형태 도입을 통해 공공 부문의 일자리 나누기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력구조를 분석하여 정·현원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적시 채용을 통한 인력결원의 최소화, 휴직 사전예고제도를 통한 휴직결원에 대한 사전대응, 예비합격자 제도 개선을 통한 신규직원 퇴사에 따른 결원기간 단축 등이 대표적인 제도개선 사례입니다.

이러한 정현원차 관리뿐만 아니라, 공단여건에 맞는 새로운 근로 형태를 도입하여 일자리 나누기와 근로개선 조직문화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휴직자 대체인력 채용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시간

선택제 적합 직무를 발굴하고 이를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신규채용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임금피크 대상인력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으로 일자리 나눔 활동을 확대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개선 조직문화

구분	추진실적	추진성과
연차사용 권장	시간 단위 휴가제도: 반일 단위→1시간 단위	연차 사용일수
	Refresh 휴가제도: 신입직원 연차휴가 부여	1.2일 증가
	휴가 사유 삭제: 당연한 휴식권 보장	(7.4일 → 8.6일)
유연근무 활성화	임직원 수요에 맞는 신규 근무유형 도입·운영	유연근무제 활용률
	유연근무제 신청·출퇴근 등록 절차 간소화	10.6%p 증가 (74.9% → 85.5%)
근로시간 준수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정시퇴근 적극 권장	시간외 근무 5.8% 감소
	장시간 근로해소를 위한 보수제도 개편 노사공동 TF 운영	(월간 14.1 시간 → 13.3 시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공단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힘쓸 뿐만 아니라,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결정기구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 가이드라인을 100% 준수하여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환 과정에서 채용절차·전환인원·전환방식·근무조건 등 이해당사자 의견을 적극 고려한 기준을 마련하고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전환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비정규직 채용 사전 심사제 등을 통해 비정규직 운영 근로관행을 개선하여 비정규직 제로화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대비
전환결정 실적



직무급제 도입 비율
공기업 평균(2.11%) 대비 최고수준



공단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후의 처우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견용역근로자와 先정규직 전환, 後처우개선을 협의하여,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지연·계약만료 시기의 도래 등으로 인한 고용안정의 어려움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견용역 근로자 대상 정규직 전환과 함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비 절감 재원을 100% 처우개선에 활용하였습니다. 정규직과 동일한 복리후생을 제공하고 절감재원 전액을 전환자에게 지급하여 전환자의 처우를 개선하였습니다.

핵심사업 연계 일자리 창출

해양환경분야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공단의 역량을 활용하여 공단 핵심사업 중심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또한 일자리 창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해양보전사업·해양방제사업·해양사업 등 공단은 여러 사업에 걸쳐 해양환경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여객항로 등 해양폐기물을 집중 수거 활동과 해양환경조사연구원 건립을 통해 해양보전 일자리 총 804명을 창출하였으며, 다목적 대형방제선 건조·설계와 노후선박 성능개선 등을 통해 총 157개의 해양방제사업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골재 채취선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20명을 포함하여 해양사업을 통해서도 117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양환경분야 투자 확대를 통해 총 1,078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해양보전 일자리 창출
정화사업 172명, 연구원건립 83명 등

804명

해양방제 일자리 창출
특수선 건조설계 27명,
선박성능개선 20명 등

157명

해양사업 일자리 창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0명 등

117명

신규사업과 혁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공단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기술개발을 통해 일자리 창출 기반을 조성하고, 신규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신기술로써, 2018 기후변화 대응 대표기술 10선에 선정된 블루카본 관리기술, 분산된 해양환경정보를 통합·관리하는 해양환경정보 통합관리 기술 등을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해양미세플라스틱 대응 인프라 확보를 위한 직접고용, 갯벌 해양생태계 가치 증진을 위한 복원 사업 민간부문 고용창출 등 신규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해양분야 공공기관 파트너십 기반 활용 공단은 일자리 창출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좋은 일자리 창출 문화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공동 학습그룹·해양클러스터 기관·전국 대학교 등 3개 그룹 24개 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공동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환경·안전분야 관련 공공기관과는 함께 취업박람회, 채용 토크 콘서트, 공모전 등을 추진하여 해양분야 좋은 일자리를 위해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분야 구직자와 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해소하고 해양분야 관심 구직자와 관련 일자리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었습니다.

공공기관 파트너십 기반 협업

구분	내용
해양수산분야 공동취업박람회	해양수산 분야 청년 고용 및 재취업 지원, 채용상담 및 주요사업 홍보
블라인드 채용 토크 콘서트	해양분야 전공 구직자를 위한 협업 방안 발굴 7개 기관 공동 참여를 통해 채용방향, 채용방침 설명
대국민 일자리 창출 아이디어 공모	해양수산 기관 협업으로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일하는 방식, 기술혁신, 신규사업 발굴 등 대국민 의견 수렴 및 관심제고

해양클러스터 기관과의 협업 진행 공단은 2018년부터 해양수산 연수원 등의 해양산업의 전문성을 보유한 해양클러스터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인프라 기반 일자리 매칭 활동을 펼쳐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예선 업체의 운항기술 교육부담으로 인한 예인선 기인 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예선운항기술, 관리체계 등의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도 진행하고 있었던 일자리 매칭 지원서비스인 '일자리 바다(海)라'를 지속 운영하여, 구직활동 교육생에게는 해운회사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해운회사에는 인력 총원 니즈 발생시 인력을 매칭하여 주는 형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8년 구직자와 해운회사간 일자리 매칭 건 수는 238건이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21.4% 향상된 성과입니다.

예인선 운항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공플랫폼 구축 및 운영



대학교와의 협업 강화 공단은 청년층의 실무경험 축적을 위한 인턴 확대요구와 고용·경제 상황의 어려움으로 인한 정부의 고용대책에 발맞춰 체험형 인턴 고용을 확대하고 취업특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소속기관의 대학교까지 대학교 대상을 확대하고, 대상자의 전공범위까지 확대하여 체험형 인턴 참여 기회를 늘렸습니다. 또한 취업특화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대학생 취업 역량 강화 캠프 운영 등을 통해 대학생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핵심성과



지역사회 공유가치 창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협력체계 해양환경공단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체계를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우선구매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 의무구매비율이 5%로 상향됨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가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전사적 구매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내부 지표를 개선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해 정부권장정책 우선구매율을 100% 달성하였고, 우선구매 실적 또한 전년대비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단 주도로 4개 유관기관 및 10개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참가한 구매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각 업체별 주요 업무 소개와 1:1 맞춤형 구매상담회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과 해양수산 유관기관의 네트워크 강화에 기여했으며, 박람회를 통해 7,200만 원 규모의 구매가 이뤄졌습니다.

2018년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실적

평가지표	목표(%)*	실적(%)	목표대비
사회적 기업 제품	3	3.17	106%
사회적 협동조합 제품	0.1	0.12	120%

* 구매 목표 : '사회적가치 구현' 계량평가 만점 기준

지역사회 참여와 협력 확대

해양환경공단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공단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공단의 역량을 활용한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해양환경교육원의 시설과 교육 콘텐츠를 지역사회와 공유함으로써 단순 시설개방에서 더 나아가, 지자체 프로그램 등록, 조파수조 Test Bed 지원 등을 통한 공간 콘텐츠 공유가치 확산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국제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공단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공헌

구분	내용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패럴림픽	북한응원단 선박 등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한 예인작업 지원
해양환경교육원 자원개방, 공유	강의실 및 주차장 등 유휴시설 정보를 '정부24'포털, '까치배움터' 홈페이지 공개 및 무상 시설공유 제공
2019년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	선수권대회(7.8~7.19) 기간 해양부유쓰레기 순찰 39회 및 15.5톤 수거 마스터즈 대회(8.7~8.11) 기간 해양부유쓰레기 21회 순찰 및 33.7톤 수거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추진

사회공헌 전략체계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고, SDGs와 같은 전 세계적 목표를 반영하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 추진체계를 재정비 하였습니다. 공단 임직원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공헌위원회를 재구성하는 것을 필두로 사회공헌 4대 핵심테마에 따른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단 고유사업이 사회공헌 속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본업과 연계한 사회공헌 활동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공헌 VISION

깨끗한 바다를 통한 사회적가치 실현 선도기관

SLOGAN

나눔이 있어 행복한 바다 (나눔 SEA, 행복 SEA)

핵심테마

건강海 복지	안심海 어민	성장海 학생	감동海 국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연안가 정화, 환경 복원, 캠페인	어촌계 복지향상을 위한 일자리창출, 주거환경개선, 해양 관광 활성화	교육 양극화 완화를 위한 장학금 지원, 도서관 구축, 교육 기부활동	사회적 약자와 상생 협력을 위한 복지 시설 후원, 장애인 스포츠 지원

MONITORING

국민희망 일자리 추진단 / 일자리창출 전담부서 / 국민 / 외부전문가 등

내부운영조직 KOEM 사회공헌위원회 바다사랑봉사단, 사회공헌 사무국	외부파트너십 사회공헌정보센터, 사회적기업진흥원 등 해양환경 NPO 및 협업단체
--	--

건강海 복지 사회공헌 핵심테마 중 '건강海 복지'는 지속가능한 해양 환경 조성에 집중하여, 연안정화활동 및 해양환경 보호 캠페인 추진과 바다생명의 근원, 바다숲 조성활동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육상쓰레기의 해양유입 저감 및 국민 인식개선을 목표로 한 연안정화활동 및 해양환경보호 캠페인은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 지역주민들이 동참하는 대규모 행사가 되었습니다. 바다생명의 근원, 바다숲 조성활동은 해양생태계·수산자원 복원을 통한 건강한 해양



▲ 2018 경포해수욕장 연안정화의 날 행사

공간 조성을 목표로 바다식목일 기념 행사 공동개최, 바다정화활동 등의 국민참여형 녹화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심海 어민 사회공헌 핵심테마 중 '안심海 어민'은 행복한 어민 생활 조성에 집중하여, 지역특산물 구입 및 후원, 공단 인프라를 활용한 농어촌 마을 일손돕기 활동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어촌과의 협력을 통한 해양환경보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안심海어민'은 깨끗한 어업환경 조성을 통한 어촌경제 활성화에 집중하며, 해양환경보전활동 및 오염방제 활동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자체, 어촌계 및 유관기관의 협업을 통한 정기적 연안정화 활동을 통해 해양환경 보전 및 풍요로운 어업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어촌계 생산 지역특산물 구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제대응센터를 설치하여 유류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어업 피해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 어촌계 방제대응센터 설치

성장海 학생 사회공헌 핵심테마 중 '성장海 학생'은 미래 해양인재 육성에 집중하며, 바다 DREAM 그림대회 개최,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노사공동 후원 활동을 중점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꿈꾸는 바다, 바다 DREAM 그림대회는 장애로 인해 소외받는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대상 그림대회입니다. 또한 공단은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조성된 '사랑海천사기금'과 매칭그랜트 방식의 기부금 운영을 통해 소외지역 청소년과 해사고등학교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사랑海천사 장학금지원을 통해 미래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바다 DREAM 그림대회

감동海 국민 사회공헌 핵심테마 중 '감동海 국민'은 국민과의 상생 및 협력기반 조성에 집중하며, 지역사회 복지향상 활동과 장애인 스포츠 후원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향상 활동은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 실천을 목표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및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설·추석 명절 사회복지시설 방문, 생필품 및 클린싱고센터 반환물품 기부, 시설청소 및 보수작업, 사랑海김치전달, 헌혈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 복지향상을 목표로 하는 장애인 스포츠 후원 활동을 위해서는 장애인스포츠 단체 인건비 지원을 위한 후원을 추진하고, 장애인 유망선수 발굴 및 육성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감동海 국민'의 활동들은 지정기부금과 사랑海 천사기금을 통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휠체어컬링 선수단 후원

지역사회공헌 관련 주요 수상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2015~2017 3년 연속 수상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표창 전국 단위 해양환경 진로체험 교육을 통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공로 인정	 영도구청 감사패 지속적인 문화사업과 적극적인 시설공유활동으로 지역과의 상생협력에 기여한 기관 선정
 목포해양대 감사패 맞춤형 방제교육 및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공헌 교육훈련 나눔에 공로 인정	 가락골 상인연합회 감사패 가락동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상생 기여	

동반성장 내재화

동반성장 체계

동반성장 추진전략 수립 해양환경공단은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동반성장 전략방향을 수립하여 협력회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공단의 동반성장 전략방향은 ‘동반성장 추진기반 구축’, ‘동반성장 문화 확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반성장 추진기반 구축

기술 지원 및 소통 확대를 통한 역량 강화 공단은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공단 중장기 경영전략과 연계한 동반성장 추진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미래성장 동력 확보와 사회적가치 실현을 이행하기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반 협력 발전’을 동반성장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추진 기반 구축 전략을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립을 도움으로써 동반성장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동반성장 기반 마련

구분	주요 추진 실적
성과공유제 다각화	오일펜스 전개판 지식재산권 중소기업 이전
동반성장 제도 개선	중소 협력업체 지원 기준 완화, 동반성장 지원 대상 범위 확대
현장소통 확대	임원급 동반성장 현장방문 확대

해양산업 상생 인프라 강화 공단은 해양산업 상생 인프라 강화를 위해 협력업체와의 모범거래 모델을 마련 등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 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사내벤처 동아리인 ‘오션블루칩’을 결성하여 혁신 기술 개발과 지원에 대한 전사적 동반성장 문화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회사의 판로지원을 위해 공동 R&D 성과물을 전시회 등에 수시로 시연하고 해외 바이어 대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8년 민간과 공동으로 개발한 파워팩 자항식 유희수기가 프랑스 등 6개국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동반성장 문화 확산

공정문화 확산 공단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공정문화 확산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래형태에 따라 ‘對국민 거래관행 개선’, ‘對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로 구분하여 공단 거래특성에 맞는 ‘KOEM 모범거래 모델’을 마련하고 10개 대표과제를 선정하여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KOEM 모범거래모델

구분	추진내용
對국민 거래관행 개선	교육 환불 규정에 대한 알권리 보장 강화
對협력업체 거래관행 개선	정화사업 일방적 책임요구 시방서 개정
	국민 참여 계약워크숍 개최
	물품원가 평균단가 적용 산정
	협력업체와의 상생 안전문화 정착
	협력업체 현장근로자 안전보건 및 인권 보장
	온라인 서류 확인 및 보증금 완화
민간기업의 불공정행위 차단	공동도급 적극 확대
	하도급 불공정 거래 예방·감시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운영

협력회사와의 소통을 통한 상생문화 확산 공단은 협력업체와의 간담회 개최·클린협약 체결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업체 Pool을 대상으로 상생을 위한 의견을 수렴 하였습니다. ‘공정거래’, ‘동반성장 추진체계’, ‘동반성장 의지 및 확산’, ‘부당요구 현황’ 분야별 상생을 위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동반성장 체감도 점수 전년도 90.09점에서 92.94점으로 상승하였으며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었습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분야별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지속적인 동반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각 분야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지원활동으로는 협력업체의 인재 역량 강화, 테스트 베드 제공, 경영여건 개선, 품질경영·안전경영 인증 지원, R&D 활성화 등이 있습니다.

구분	주요 추진 실적
인재 역량강화 지원	기업 역량강화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
경영여건 개선 지원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획득 지원
품질경영·안전경영 지원	중소기업 ISO9001(품질경영), ISO14001(환경경영) 인증 획득 지원
R&D 활성화 지원	자체 연구개발, 지적재산권 확보 지원

동반성장 관련 주요 수상

2018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해양중소기업 협력 기여



Appendix

인재경영

체계적 인재육성 시스템 운영

핵심가치와 연계한 역량중심 교육 해양환경공단은 핵심가치를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일할 창조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단의 경영전략과 사회적가치를 고려한 HRD 전략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전략목표에 따른 인재상을 Knowledge(전문인), Ownership(소명인), Enthusiasm(창조인), Morality(청렴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필요 역량에 따라 직무역량, 리더십역량, 공통역량으로 모델링을 세분화하였습니다. 또한 SWOT 분석을 통해 HRD의 3대 세부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직의 니즈와 개인의 니즈를 고려하여 156개의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2018년 역량강화교육



공통

e-러닝, 우편독서 등



리더십

계층별, 승진자, 여성리더십 과정 등



직무

전문방제, 해양환경직무교육 등

핵심가치와 연계한 역량중심 교육운영으로 사회적가치 창출

역량구분	추진실적	성과
공통 역량	청렴·안전·이러닝 등 교육과정 확대(42개) 직무교육시 경영이념 등 커리큘럼 반영(매회) 스마트러닝(13,793개)과정 운영	부패방지 사책평가 3년 연속 '우수' 달성 新비전·전략 직원 인지도 4.3점(5점 만점 기준) 달성
리더십 역량	현장실무 능력배양 중심 여성리더십과정 운영 신규직원 리더십 및 안전의식 강화 교육 제공 계층별 R&R 중심의 '리더십교육' 운영(7회)	여성관리자 확대: ('17년)6명→('18년)7명 직무교육 여성참여 증가: ('17년)82건→('18년)109건 KoBEX 지수 최우수 'AAA' 획득
직 무 역 량	해양보전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재양성 프로그램 제공(9회) 현업 적용도 향상을 위한 부서간 협업기반의 수시 집합교육(월1회) 운영	해양환경직무교육: ('17년)6회→('18년)8회
방 제 대 응	국가재난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오염사고 대응 핵심인력 양성과정' 확대 운영, 복합적 해양재난 대비 훈련 확대	오염사고대응 핵심인력 양성과정: ('17년)9회 → ('18년)14회

교육성과 평가체계 운영 공단은 HRD의 객관적 경영기여도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성과를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반응에 초점을 둔 단계로, 설문을 통하여 교육종료 후 만족도를 조사합니다. 그 이후 2단계로 넘어가 학습평가를 위한 사전·사후 필기시험을 진행합니다. 3개월의 교육기간 이후 실질적인 행동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3단계 과정으로서 현업적 용도를 평가합니다. 이러한 단계를 모두 거친 후 결과를 살피는 4단계에 접어듭니다. 이 단계를 통해 개인·조직 단위로 나뉘어 경영성과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2018년에는 1~3 단계별 성과인 만족도 점수, 필기시험, 평가점수가 모두 상승하였고, 개인과 조직을 모두 합쳐 약 29억 원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하였습니다.

2018년 교육인원

21,080명

2018년 인당 교육집행액

1,304천 원

2018년 HRD 경영기여도 평가

개인 68.3% > 81.2%

조직 19.4% > 22.5%

여성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제도 공단은 여성인재의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관리자를 중장기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경력단절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여성리더십 강화	
전문역량	리더십
외부 전문위탁 전문가 양성과정(3명) 해양, 국제, 교육분야 전공	여성 리더십 향상 및 양성평등교육(약140명) 여성관리자와의 소통간담회
여성전문인력(석사) 양성(국외 1명, 국내 2명) 여성리더 직무 및 재택교육 증가 (직무교육: 89건 → 103건, 재택교육: 36건 → 53건) 여성관리자 발탁(1명)	

경력단절 예방			
맞춤 교육	시간선택제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휴직 직원 우편독서 및 온라인 교육(12명) 복직 직원 지원프로그램 런칭 및 교육 제공(6명)	경력단절여성 채용 우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1년 → 2년)	유연근무제 유형(2주) 확대 등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 신규채용 증가('17년: 0명 → '18년: 2명)			

공단 내 다양한 인재 육성 공단은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는 기술직 직무에 있는 직원을 위한 교육을 확대하였고, 고졸자 후진학 지원 제도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기술직 직무교육 확대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성과
직군별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교육으로 탈바꿈 필요 (KOEM만의 특색있는 직무교육화)	기술직 니즈, 교육개발부서 개편 의견, 노조 의견 등이 반영된 전문 교육계획 수립 항해(예선운항기술전문과정, 항해직무), 기관(해양오염 방지실무과정, 기관직무), 환경(시설운영) 분야에 특화된 5개 교육 제공 공무직 맞춤형 교육과정 신규개발·운영	기술직·공무직 교육인원: ('17년)13,983명 → ('18년)14,319명 기술직·공무직 1인당 교육비 증가: ('17년)829천 원 → ('18년)1,118천 원 공무직의 조기 조직적응, 소속감 고취

기술직 직무교육 확대

추진배경	추진내용	추진성과
후진학 제도 확대 필요성 증가	고졸자 후진학 지원제도 개선 및 홍보 강화 선발 확대, 등록금 선지원, 대학원 지원 허용 등	고졸자 후진학 대상자 최초 선발 (총 4명: 일반직 2명, 기술직 2명)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노사공동 3대 목표 설정 해양환경공단은 노사공동의 목표달성을 위해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노사공동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정부 국정과제와 같은 대외환경, 조직통합이 필요한 내부여건, 노동조합의 성장, 건강한 노사관계 구축 등의 필요사항을 고려하고, 1:1 현장 소통·SME 인터뷰 등을 통해 소통과 참여의 과정을 통해 3대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노사공동 3대 목표



인사·보수제도 개선
직원 공감 제도 개선
노사공동TF팀 운영



조직문화 Re-Design
직원 참여 프로세스 혁신
혁신과제 56개 발굴·이행



사회적가치 확산
국민 중심 사회적가치 실현
일자라·사회공헌 활성화

내부 조직문화 혁신 진단

90.8점

개인평가제도 개선후 직원 만족도
2017년 2.79점

3.34점

이러한 노사공동 3대 목표 아래, 노동관계법 및 단체협약에 따라 정당한 노조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입·탈퇴를 보장하는 등 노조가입을 확대하여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근로시간 조정 및 면제 지원을 통해 고용노동부 고시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게시판·지사 고충상담실을 신설하여 고충처리를 확대하고, 노조 행사를 지원하는 등 조합 활동을 보장하여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노조가입률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전체 근로자 수	명	551	598	668
가입 인원	명	388	417	508
가입 비율	%	70.4	69.7	76.0

성과 평가 및 보상

합리적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공단은 공정한 성과 평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평가 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평가 부서와 개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성과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과 개인의 성과를 구분하고, 평가방식·평가군·평가지표 등 평가요소들을 차별화하여 평가제도가 사회적가치를 담고 조직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직 성과평가 부분에서는 전 부서의 결과를 공개하고, 부서 평가 참관단 운영 등 다방면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평가 보조 역할에 한정되어있던 내부직원이 평가에 참여하면서 평가의 공정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개인 성과평가 부분에서는 평가자 평가의 불공정 평가 사례를 개선하고, 평가 매뉴얼을 제작·공유하여 평가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사공동TF팀, 직원워크숍 등 직원참여 중심의 개선과제 발굴로 성과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상과 추가 육성 프로그램을 통한 성과 향상 공단은 성과와 연동한 합리적 보상 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성과자에게는 실적적인 보상을 통해 성과 창출을 유도하고, 저성과자에게는 성과향상을 위한 코칭·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상 또한 성과관리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개인과

조직을 구분하여, 고성과자에게는 승진·보직·교육·포상 등 다양한 보상을 제공하고, 조직차원에서는 최우수부서, 성과향상부서를 선정하여 포상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는 대상을 확대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기주도형 역량향상을 도모하며, 우수 부서장 멘토를 지정하여 코칭하고 있습니다. 조직차원에서는 결과 이후 약 8개월까지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외부 전문가의 정기 및 상시 자문을 통해 코칭을 진행합니다.

사회적가치를 반영한 성과 관리

지표명(담당부서)	개선 내용	성과
기관 혁신(사회가치·혁신팀)	(지표신설) 가중치 22%	기관 경영혁신 추진과제(21건) 도출·실행
사회적가치 제고 노력(전부서)	(지표신설) 부서 공통지표	부서 평가지표 반영으로 사회적가치 내재화
해양수질 개선 성과(해양수질팀)	(가중치 확대) 14%→25%	해양수질 개선 성과 4.54점 ↑ (52.73점→57.27점)
일·가정 양립 성과 제고(인적자원팀)	(지표신설) 가중치 7%	유연근무 활용률 확대, 장시간 근로 해소 등
사회적가치 구현(운영지원팀)	(지표 세분화) 1개 → 3개	용역근로자보호, 에너지 및 환경 등 체계적 이행

임직원 삶의 질 향상

복지후생제도 개선 공단은 전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후생제도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내·외부 환경분석, CEO 중심 직원의견수렴, 청년중역회의 운영을 통해 제도를 발굴합니다. 이처럼 환경분석 및 소통채널 다양화와 직원의견수렴에 집중하여, '휴식 있는 삶, 여가권 확보', '행복한 일터, 직소확행 실현', '가족친화 문화 확산'의 추진과제를 도출 했습니다. 이러한 추진과제는 다양한 복지제도 운영으로 이어져 여러 성과를 창출해냈습니다.

복지제도 운영 및 성과 창출

복지제도	주요 성과
유연근무제, 연차축진제 개선 및 집중시간근로제 도입	여가친화기업 최초 인증 (문체부, 12월)
여가권 확보 문화할인 지원, 문화와 함께하는 체육대회 릴레이 북콘서트, 아로마테라피, 캘리그래피 등 문화활동 확대	
직소확행 (직장에서의 자치만 확실한 행복) 실현	일·생활 균형 캠페인 인증 (고용부, 11월)
일·가정 양립 제도 개선	가족친화기업 재인증 (여가부, 12월)

근무 유형 다양화 공단은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근무 유형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근무제, 유연근무제, 연차사용에 집중하여 근로개선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일·가정 양립 근무환경 개선 공단은 일·가정 양립 및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동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여성육아 휴직 대상자의 휴직권리를 전부 보장하고 있습니다.

남성육아휴직 또한 승인을 간소화 하여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휴가제도 뿐만 아니라, 보육지원 가능한 사옥 내 키즈카페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안정적 근로 환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의 날, 아버지의 날을 확대 운영하여 일·가정 양립 제도를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OASIS 캠페인

깔끔하게 (ShOrt)

전년대비 시간외 근무시간 감소율

5.8%▼

집중근무제, 일과 후 자동 소등, 정시퇴근 유도

똑똑하게 (SmArt)

2018 유연근무제 참여율

85.8%

유연근무제 신청기한 단축 및 신규유형 도입

충분하게 (SatISfy)

연차휴가 사용일수

2017 7.4일 > 2018 8.6일

1시간 단위 연차사용, 징검다리 연차 활성화

안전경영

산업재해 예방체계 운영

안전관리 체계수립 해양환경공단은 신설된 안전관리팀을 기반으로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이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제대응센터, 사육, 숙소 등 공단 소유의 각종 시설과 선박 안전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작업장 위험성 평가모델을 개발하여 안전 점검활동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선원에 대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 근무환경 점검 및 개선으로 생활환경 위해요소 사전 제거 공단은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발생 가능한 산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육·방제대응센터, 선박 등 직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 조치 이후 근무환경 점검을 통해 위해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사육·방제대응센터의 경우 안전점검 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조합 및 본사의 검증을 진행하였고, 선박의 경우 소속기관 실무자 및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여 방제자원 점검단 운영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신속한 상황대응을 위하여 작업중지 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노력은 한국안전인증원의 공간안전인증 획득과, 소방청 주최 2019년 대한민국 안전대상 ‘국무총리상’ 수상의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폐유 수거·처리 사업에서의 근로자 안전 확보 사례

문제인식	개선노력	추진성과
유수분리 노후화에 따른 안전관리 위협	방류유량계 최신장치 교체 및 누전발생 방지 공사 시행	직원 안전 및 건강성 확보 황화수소 획기적 감소 1,000→100ppm(900ppm ↓)
황화수소 증대에 따른 직원 건강우려	오존발생장치 설치를 통한 황화수소 발생 저감(악취감소)	

근로자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매뉴얼 정비 공단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훈련과 매뉴얼 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부서 안전지킴이 교육, 전문 강사를 통한 감정노동자 건강관리 교육 등 안전보건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교육 참여율은 전년대비 19.0%p 상승하였습니다. 또한 총 690회에 달하는 방제훈련을 포함하여 소방훈련, 지진대피훈련을 실시하여 2018년 100% 무사고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안전경영의 범위에 협력회사를 포함하여 위험예지훈련을 실시하였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재해 유형별 재해대응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재해 및 위기 대응 매뉴얼’과 감정노동자보호를 위한 ‘근로자 자기보호 매뉴얼’을 개선·제정하여 2018년 산업재해 발생 ‘ZERO’ 달성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보건교육 참여율

2017 53% > 2018 72%

방제훈련 및 방제조치(89건)

100% 무사고 달성

2018년 산업재해 발생

ZERO 달성

위험 업무의 내부화를 위한 용역업체근로자 정규직 전환 실시

경비, 청소, 시설관리, 안내, 연구보조 등

2018 48명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정보보안 정책 수립 및 이행 공단은 정보보안 사고 ZERO를 목표로 선진적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진 정보보안 체계 구현을 통한 경영정보 안전성 확보'라는 비전 아래 국정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이버 위협 증가와 같은 외부환경과 전사적 정보보안 수준 제고가 필요한 내부 환경을 고려하여 전략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보안 정책 강화, 사이버 대응 체계 강화, 보안 수준 및 서비스 강화의 전략목표를 지정하고 정부정책과 전년도 지적사항을 반영한 중점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국가 정보보안 정책 내재화를 위한 개선 노력			
조직강화	인식제고	예산확대	성과평가(BSC)
정보화운영팀에서 정보화팀으로 분리	최고경영자에게 주기적 (월별) 보고체제로 전환	전체 정보화 예산대비 정보 보안 예산 목표(15% 이상) 설정	전사 공통지표 내 정보보안 활동 반영 했으나 보완(지사 점검지표 추가 등)필요
▼	▼	▼	▼
정보화팀 내 전담조직(정보 보안파트) 신설 및 전담인력 보강(1명→2명)	정보보안 보고 내용 다양화 (6개→9개 분야)로 최고경영자 관심 제고	정보화 운영 수행 전 사전 예산 검토로 보안예산 대폭 확대(16.5%→23.6%)	정보보안 활동지표 (1개→4개) 강화 지사 정보보안 점검 및 감사활동 지표 반영

사이버 공간 안전성 확보 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 공단은 사이버 공간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해킹 사고 대응 및 예방 활동 강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공단 외부 이메일 해킹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키워드 검사·악성코드 검사·메일 주소 검사·스크립트 제거로 이루어진 4단계 예방 활동을 통해 해킹사고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악성코드 사전 차단을 통한 해킹메일 수신 방지 비율이 전년대비 188%상승한 3,157건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사이버 훈련을 고도화하고 절차 정비하는 등 선제적 대응을 내재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해킹메일 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한 대응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암행방식 훈련 도입 및 랜섬웨어 훈련 추가 실시로 사이버 대응 훈련을 고도화 하고 위기대응 관련 매뉴얼 개정을 통해 사이버보안 위기대응 절차를 정립하였습니다.

안전한 개인정보보호 공단은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체계적 개인정보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책 표준화, 예산 확대, 교육 강화, KPI 반영 등의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견고화하고 운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제공절차를 개정하고 개인정보 취급자 대상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관리 이행 내부지표와 행안부 개인정보 자가진단을 통해 자체 점검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개인정보 관리 내재화			
			
정책 표준화	예산 확대	교육 강화	KPI 반영
개인정보보호법에 부합하는 공단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책 표준화 및 전사 배포	개인정보 예산 확보 노력을 통해 전년 대비 119% 증액 ('17년 6,300만원 → '18년 13,800만원)	경영진·일반직·공무직·협력사 등 전사적 개인정보보호 인식제고 교육 100% 이수	전사 공통지표에 개인정보보호 활동 반영하여 전사적 참여기반 조성

해수부 정보보안업무

최우수 산하기관 선정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Zero 달성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 평가

5년 연속 최고등급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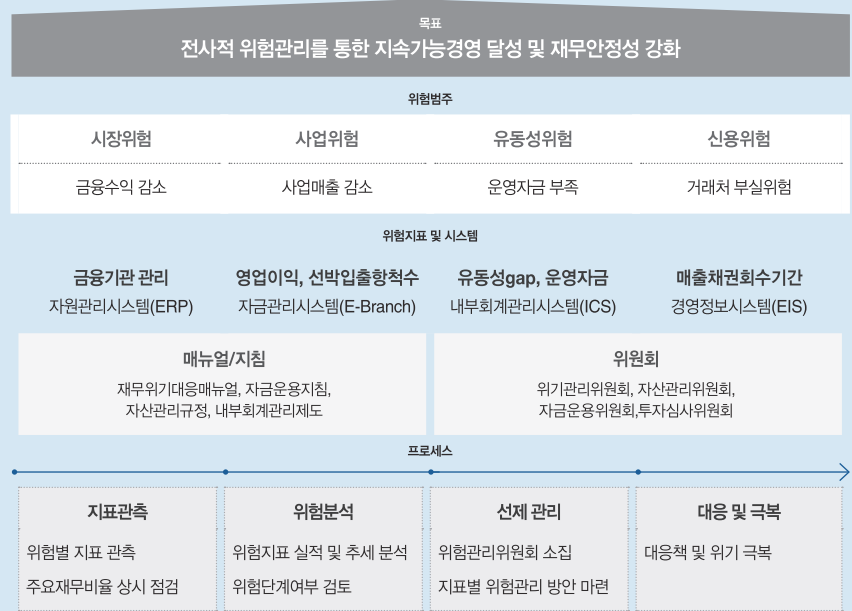
국정원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우수기관 선정 및 국정원장상 표창

리스크관리

재무리스크 관리

위험관리체계 구축 해양환경공단은 위험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사적 위험관리를 통한 지속가능경영 달성 및 재무안정성 강화'라는 목표 아래 위험범주를 구분하여 세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 및 규정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핵심 재무리스크 중점 관리를 통한 선제 대응 안정적인 Cash-Flow 확보를 위해 핵심 재무리스크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해운경기 및 조선업계 침체 장기화, 연구원 및 방제대응센터 건립 등 대규모 자본 투자 계획, 정체된 매출 대비 고정비 비용 증가 등 대·내외 경영환경을 고려하여 2개의 중점관리 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자금 감소 대응을 위한 유동성 위험 관리와 신사업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위험 관리를 중점관리 사항으로 도출하고, 징후 관측·현황 분석·대응 방안 마련의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42억원의 수익과 신규예산 26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투자기반을 위한 재원을 2008년 부터 100% 자체 조달함으로써 무차입경영을 통한 재무 건정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재무건전성 제고

체계적 유동성 관리 공단은 체계적인 유동성 관리 및 부채 최소화를 통해 재무 건전성 제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구분회계 관리, 자금조달 계획 수립, 모니터링, 피드백의 구분회계와 연계한 유동성 프로세스 정교화로 자금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자금조달 계획을 중장기 재무 시스템과 연계하여 자금 전망을 정교화하고, 내·외부 모니터링을 통해 금융환경 및 자금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재무능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유동 비율은 23.9%의 상승을, 당좌비율은 24.4%의 상승을 이뤄내 미래 신성장사업 투자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KOEM 부채 및 신용등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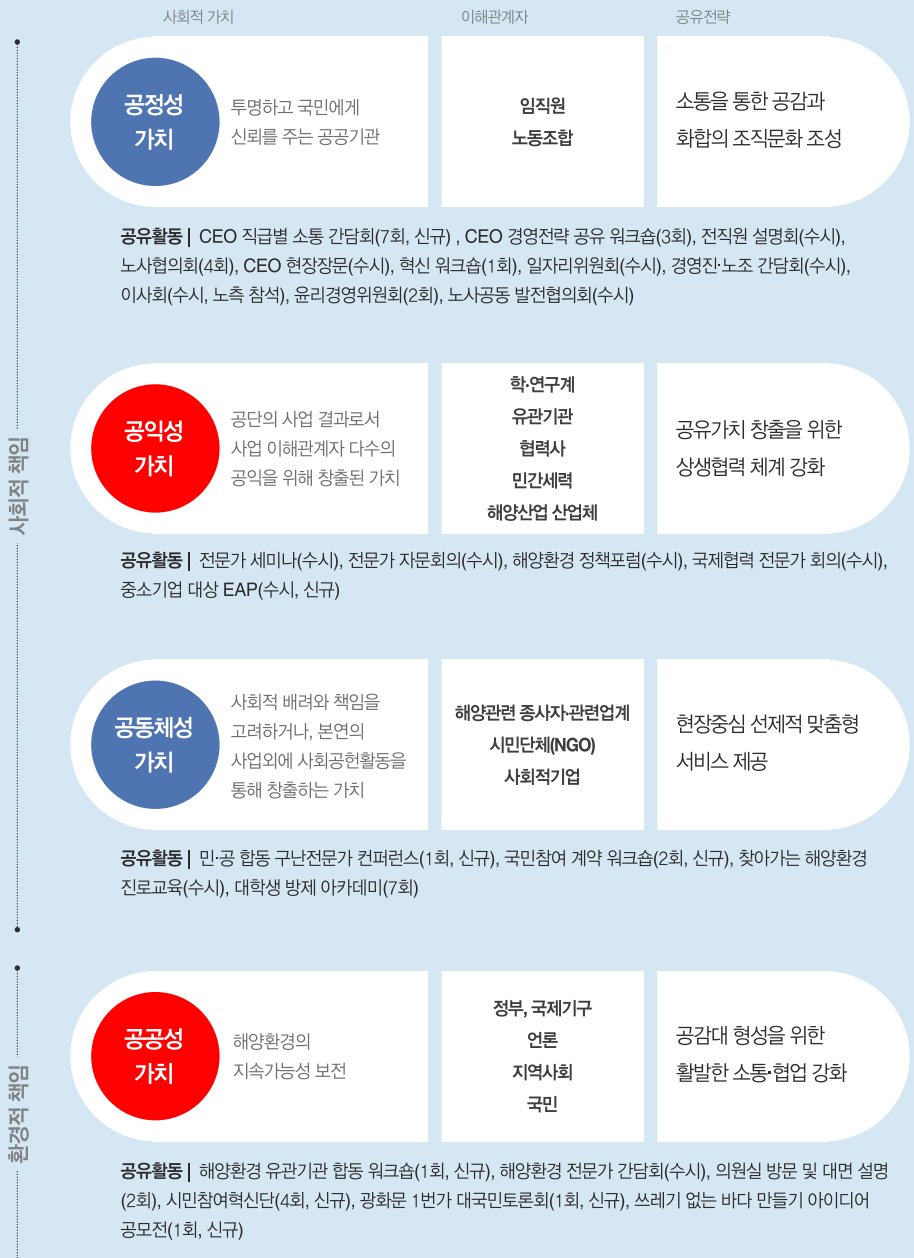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부채비율*	%	11.86	11.45	25.02
부채규모	백만 원	21,936	21,281	41,389
금융부채	%	0	0	0
신용등급	등급	AAA	AAA	AAA

* 공기업 전체 평균 부채비율 : 116.11%, 공기업 2군 63.01%, 무차입공기업 28.85% (2017년 기준)

이해관계자 참여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및 성과

공단은 사회적가치 지향점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정의하고 이해관계자별 주요 공유전략을 수립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관심과 요청사항이 공단의 지속가능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책임

환경 책임

중대성 평가 및 보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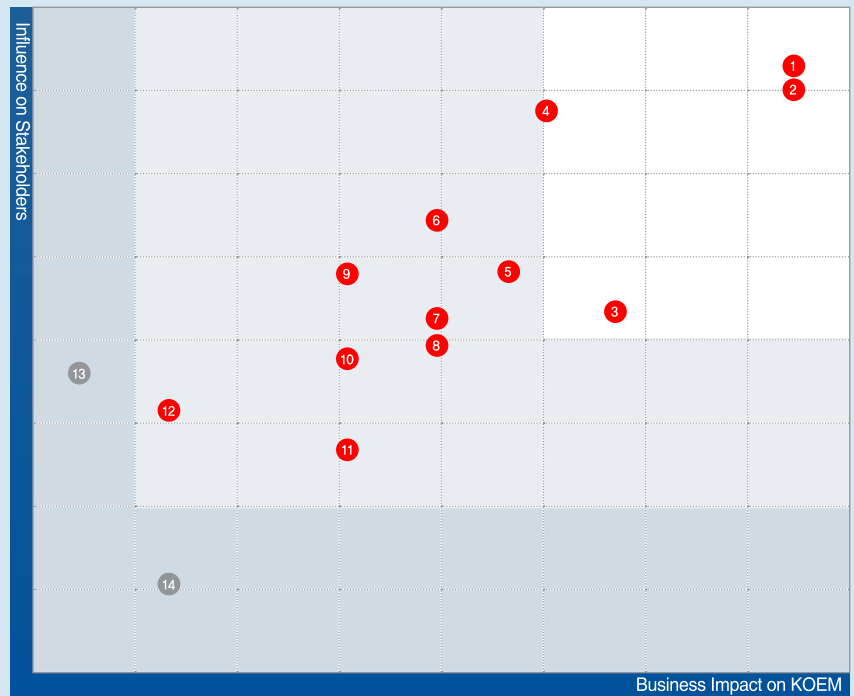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해양환경공단은 중대성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공단의 사회적가치 창출 활동과 사회책임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사회책임경영 이슈를 식별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경영전략 및 성과, 전기 보고 내용, 정부 정책과 규제, 산업 공통 이슈와 선진 사례 등을 통해 잠재적 보고 이슈를 식별하였으며,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 가이드라인인 GRI Standards와 UNGC 10대 원칙 등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미디어 분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공단의 지속가능경영 이슈 풀(Pool)을 구성하고,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와 설문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단은 비즈니스 차원의 중요도와 이해관계자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14개의 중대 토픽(Material Topic)을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공단의 중대성 평가 세부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Step 1	이슈 풀 구성		
	<p>이슈 검토</p> <p>내부 사업 전략 및 성과 지속가능경영 가이드라인 (GRI Standards, UNGC 10대 원칙, ISO 26000, SDGs) Trend & Impact 분석 미디어 분석 정책 및 규제</p>		
	658개 이슈 풀		
Step 2	보고 토픽 선정		
	<p>중요 이슈 구성 및 선정</p> <p>이슈의 카테고리화 (중복제거, 통합) 영향력이 낮은 이슈 통합</p>		
	<table style="width: 100%; border: none;"> <tr> <td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50%; color: #f00;">25개 토픽 카테고리화</td> <td style="border: 1px solid #ccc;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width: 50%; color: #f00;">14개 토픽 선별</td> </tr> </table>	25개 토픽 카테고리화	14개 토픽 선별
25개 토픽 카테고리화	14개 토픽 선별		
Step 3	중대성 평가		
	<p>중대 토픽 우선순위 평가 기준</p> <p>내외부 이해관계자 설문 진행(2019.9.16~9.24) 이해관계자 관심도와 비즈니스 영향도 분석</p>		
Step 4	제3자 검증		
	<p>중대성 평가 프로세스 검증 중대 토픽 중심보고 검증</p>		

중대성 평가 결과

중대성 평가 절차를 통해 선정된 중요 이슈는 이해관계자 의견과 전략적 중요도를 고려한 우선 순위에 의해 3가지 차원(Key reporting, Preferred reporting, Optional reporting)으로 구분 하였습니다. 해양오염 방제, 해양환경 보전, 사업혁신 순으로 중요도가 도출되었으며, 선정된 14개의 중요이슈를 의미, 보고 수준, 경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보고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보고분류	우선 순위	중대 토픽	Business Impact on KOEM	Influence on Stakeholders	GRI 연계	SDGs	보고 페이지
Key reporting	1	해양오염 방제	100	84.65	자체 이슈	13 14	21-23
	2	해양환경 보전	100	84.52	자체 이슈	14	15-19
	3	사업혁신	88.89	78.16	자체 이슈	9	15, 17, 19
	4	윤리경영 및 반부패	83.33	83.74	윤리 및 청렴도, 반부패		28-29
Preferred reporting	5	산업안전보건	83.33	79.27	산업안전보건		42
	6	기후변화 대응	77.78	80.70	에너지, 배출	13	15-18, 22
	7	리스크 관리	77.78	77.98	경제, 사회, 환경영향 리스크와 기회		44
	8	동반성장	77.78	77.21	공급망 관리 및 구매절차		36
	9	인권경영	72.22	79.21	인권, 다양성 및 차별금지	5	26-27
	10	지역사회 발전	72.22	76.11	지역사회		31-35
	11	이해관계자 참여 확대	72.22	74.30	이해관계자 참여	8 9 10	45
	12	경제성과	61.11	75.41	경제성과		48
Optional reporting	13	인재경영	55.56	76.44	고용, 노동관리, 훈련 및 교육	4	38-41
	14	지배구조	61.11	70.56	지배구조		25

지속가능경영 정량 데이터

경제 성과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재무상태표					
자산	유동자산	백만 원	74,387	65,448	80,795
	비유동자산		132,516	141,645	140,424
	자산총계	백만 원	206,903	207,093	221,219
부채	유동부채	백만 원	18,503	18,180	21,046
	비유동부채		3,434	3,101	20,343
	부채총계	백만 원	21,937	21,281	41,389
자본	납입자본		74,152	74,152	74,152
	이익잉여금	백만 원	118,003	117,529	111,702
	기타자본구성요소		- 7,189	- 5,869	- 6,024
	자본총계	백만 원	184,966	185,812	179,830
포괄손익계산서와 주요지표					
수익(매출액)		114,940	114,646	111,873	
매출원가		88,456	94,526	99,369	
판매비와 관리비		20,674	21,242	21,329	
영업이익(손실)		5,810	-1,122	-8,825	
기타수익		22	62	66	
기타비용		10	11	602	
기타이익(손실)	백만 원	-1,419	-399	1,623	
금융수익(비용)		845	622	647	
관계기업관련이익		403	695	812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5,650	-153	-6,280	
법인세비용(수익)		1,004	322	-452	
당기순이익(손실)		4,646	-475	-5,828	
기타포괄손익		-742	1,320	-154	
총포괄손익		3,903	846	-5,982	
매출액순이익률	%	4.04	-0.41	-5.21	
자기자본회전률	회	62.14	61.70	62.21	
경제적 가치 배분					
임직원	급여, 복리후생비		37,965	38,763	40,880
정부	세금 및 공과	백만 원	477	477	565
지역사회	기부금, 사회공헌 활동 비용		80	48	45

환경 성과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온실가스 배출량					
Scope 1	tCO ₂ e	231.93	245.32	252.62	
Scope 2		886.79	923.25	924.37	
합계	tCO ₂ e	1,118.72	1,168.58	1,176.99	
온실가스 집약도					
매출액	십억 원	115.0	115.0	112.0	
Scope 1	tCO ₂ e/십억 원	2.0	2.1	2.2	
Scope 2	tCO ₂ e/십억 원	7.7	8.0	8.2	
조직 내외부 에너지 소비					
내부	가스(LNG)		0.12	0.12	0.12
	실내등유	TJ	0.16	0.20	0.24
	전력		16.32	17.42	19.03
	합계	TJ	16.60	17.74	19.39
외부	휘발유 사용		0.31	0.20	0.21
	디젤 사용	TJ	2.76	3.00	3.08
	합계	TJ	3.07	3.20	3.29
용수사용량					
연간 총 용수 사용량 ^①	ton	6,351	6,124	6,291	
환경 투자					
방제사업		31,509	34,579	23,922	
청하폐유사업		11,310	12,835	13,664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백만 원	6,889	7,237	6,892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14,176	17,133	14,607	
해양환경관리사업		1,710	2,934	4,666	
해양환경 기초 조사사업		16,863	16,297	25,868	
합계	백만 원	82,457	91,015	89,619	

① 용수사용량 범위는 본사에 한함

사회 성과

노동조합 가입 현황					
전체 근로자 수	명	551	598	668	
가입 인원	명	388	417	508	
가입 비율	%	70.4	69.7	76.0	
윤리경영 현황					
지속가능경영지수(KoBEX-SM 지수)	-	AAA	AAA	AAA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종합청렴도	등급	3	3	4
	외부청렴도	점	8.65	8.62	8.46

사회 성과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윤리경영 현황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내부청렴도	점	7.64	6.82	7.75
		회	10	6	3
	(집합) CEO 청렴특강	명	260	265	169
		시간	260	436	161
		회	38	18	52
	(집합) 감사실 주관 청렴 교육	명	1,279	445	1,157
		시간	2,536	722	2,169
		회	105	117	481
과정별 청렴 교육 운영	(집합) 부서장 주관 청렴 교육	명	2,407	2,336	3,411
		시간	2,694	2,697	4,252
		회	5	3	9
	(집합) 외부전문기관 청렴 교육	명	6	6	14
		시간	60	51	121
		회	94	237	14
	사이버 청렴 과정	명	355	72	419
		시간	1,685	1,102	2,732
		회	249	172	559
반부패 교육	교육이수자	명	5,775	5,116	5,170
	교육시간	시간	14,974	11,150	9,435
지역사회 현황					
민간일자리창출		명	2,165	2,433	2,511
직원 1인당 봉사시간		시간/명	28	28	30
동반성장					
우선구매 실적 ^①		백만 원	61,776	72,416	63,354
조직의 공급망		협력사 수	95	53	70
인력 현황					
성별	남성	명	486	521	562
	여성		69	80	110
고용계약	임원	명	4	3	4
	정규직		551	598	668
	비정규직		23	18	7
직급(정규직)	임원	명	4	3	4
	일반직1급		16	15	13
	일반직2급		20	20	22
	일반직3급		35	40	40
	일반직4급		52	55	56

① 2018년부터 실적 산출식 변경(중소기업, 기술개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3개종류), 국유공공자치활용사업 용역 및 물품 구매액 합계(녹색제품 해당없음))

구분	단위	2016	2017	2018	
인력 현황					
직급(정규직)	일반직5급	71	80	87	
	일반직6급	34	41	49	
	일반직7급	7	11	8	
	기술직	313	333	347	
	별정직	3	3	3	
연령(정규직)	35세 미만	183	204	189	
	35~50세	280	301	339	
	50세 초과	92	96	144	
소수자(정규직)	장애인(비율)	11(1.9%)	11(1.8%)	12(1.8%)	
	국가보훈자	20	19	22	
정규직 신규 채용 현황					
여성		1	9	10	
장애인		0	0	0	
비수도권 지역인재	명	17	32	36	
고졸자		10	12	6	
총 신규채용		28	50	52	
인력 개발 현황					
총 교육시간	시간	122,655	135,225	132,339	
1인당 교육 집행비용	천 원/명	1,274	1,300	1,304	
교육 만족도	점	96.5	96.6	97.8	
유연근무제 및 육아휴직 사용 현황					
시간선택제	채용	명	0	0	3
	전환		6	6	1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직원의 총 수	남성	명	0	2	2
	여성		4	2	4
육아휴직이 끝난 후 업무에 복귀한 임직원의 총 수	남성	명	0	1	1
	여성		5	3	3
육아휴직 종료 후 직장에 복귀하여 12개월간 근속한 임직원 총 수	남성	명	0	0	1
	여성		4	5	2
육아휴직 복귀율	남성	%	-	100	100
	여성		100	100	100
복귀 후 유지율	남성	%	-	-	100
	여성		100	83	100

GRI Standards Index

Universal Standards

지표	설명	페이지	
조직 프로필	102-1	기업의 이름	8
	102-2	활동 및 대표 브랜드, 제품 및 서비스	8
	102-3	본사의 위치	8
	102-4	사업 지역	8
	102-5	소유 구조 특성 및 법적 형태	8
	102-6	시장 영역	8
	102-7	조직의 규모	8
	102-8	임직원 및 근로자에 대한 정보	51
	102-9	조직의 공급망	8
	102-10	조직 및 공급망의 중대한 변화	8
	102-11	사전예방 원칙 및 접근	44
	102-12	외부 이니셔티브	56-57
	102-13	협회 멤버십	60
전략	102-14	최고 의사 결정권자 성명서	4-5
	102-15	주요 영향, 위기 그리고 기회	4-5
윤리성 및 청렴성	102-16	가치, 원칙, 표준, 행동강령	28-29
	102-17	윤리 관련 안내 및 고충처리 메커니즘	28-29
거버넌스	102-18	지배구조	25
	102-22	최고의사결정기구와 산하 위원회의 구성	25
	102-23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의장	25
	102-24	최고의사결정기구 추천 및 선정	25
	102-28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성과에 대한 평가	25
이해관계자 참여	102-40	조직과 관련 있는 이해관계자 집단 리스트	45
	102-41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근로자 비율	49
	102-42	이해관계자 파악 및 선정	45
	102-43	이해관계자 참여 방식	45
	102-44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 제기된 핵심 주제와 관심사	46-47
보고서 관행	102-45	조직의 연결 재무제표에 포함된 자회사 및 합작회사의 리스트	8
	102-46	보고 내용 및 토픽의 경계 정의	46-47
	102-47	주요 토픽 리스트	46-47
	102-48	이전 보고서 정보의 수정	50
	102-49	보고의 변화	N/A
	102-50	보고 기간	About This Report
	102-51	가장 최근 보고 일자	About This Report
	102-52	보고 주기	About This Report
102-53	보고서에 대한 문의처	About This Report	

지표	설명	페이지	
보고서 관행	102-54	조직이 선택한 '부합' 방법 보고	About This Report
	102-55	선택 방법에 대한 GRI 인덱스	52-53
	102-56	외부검증	54-55
경영 접근법	103-1	중대이슈 선정 이유 및 영향, 중대이슈 관리 방법, 관리체계 평가 방법	14, 20, 24, 30
	103-2		
	103-3		

Topic-specific Standards

지표	설명	페이지	
경제적 성과(GRI 200)			
경제성과	201-1	직접적인 경제적 가치의 창출과 배분	48
	201-2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과 사업활동에 대한 위험과 기회	49
간접경제효과	203-1	공익을 위한 인프라 투자 및 서비스 지원활동	31-35
	203-2	중요한 간접적 경제 파급효과 및 영향	31-35
구매 관행	204-1	주요한 사업 지역에서의 현지 구매 비율	50
반부패	205-2	반부패 정책 및 절차에 관한 공지와 훈련	28-29
경쟁저해행위	206-1	경쟁저해행위, 독과점 등 불공정한 거래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	N/A
환경적 성과(GRI 300)			
에너지	302-1	조직 내부 에너지 소비	49
	302-2	조직 외부 에너지 소비	49
용수	303-1	공급원별 취수량	49
배출	305-1	직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	49
	305-2	간접 온실가스 배출량(scope 2)	49
	305-4	온실가스 배출 집약도	49
사회적 성과(GRI 400)			
고용	401-1	신규채용과 이직	51
	401-2	비정규 직원 혹은 파트타임 직원에게는 제공되지 않는 정규직 직원 대상의 보상	N/A
	401-3	육아휴직	51
산업안전보건	403-1	노사공동 보건안전위원회가 대표하는 전체 근로자 비율	49
	403-4	노동조합과의 정식 협약 대상인 안전보건 사항	40-41
훈련 및 교육	404-1	임직원 1인당 평균 교육 시간	51
	404-2	임직원 역량 강화 및 전환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38-41
	404-3	정기적 성과 및 경력 개발 리뷰를 받은 임직원 비율	51
다양성과 기회균등	405-1	거버넌스 기구 및 임직원 다양성	25
인권평가기준	412-2	사업과 관련된 인권 정책 및 절차에 관한 임직원 교육	26-27
고객정보보호기준	418-1	고객개인정보보호 위반 및 고객정보 분실 사실이 입증된 불만 건수	N/A

제3자 검증의견서

2018/2019 해양환경공단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 독자 귀중

서문

한국경영인증원(KMR)은 2018/2019 해양환경공단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이하 “보고서”)의 검증을 요청 받았습니다. 보고서의 작성 책임은 해양환경공단 경영자에게 있으며, 본 한국경영인증원의 책임은 아래에 명시된 범위의 특정 데이터와 정보에 대한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데 있습니다.

검증 범위 및 기준

해양환경공단은 보고서에서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조직의 성과와 활동에 대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검증팀은 국제적 검증 기준인 AA1000AS(2008) 및 KMR 글로벌경영위원회(SRV1000)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검증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Type 2, Moderate Level의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즉, 검증팀은 포괄성(Inclusivity), 중요성(Materiality) 및 대응성(Responsiveness) 원칙의 준수여부를 평가하였으며, 보고서에 기재된 하기 GRI 지표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의 신뢰성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때 중요성 기준은 검증팀의 전문가적 판단(Professional Judgement)이 적용되었습니다.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 보고 요구사항 만족 여부에 대한 확인이 검증 범위에 포함되었으며, 검증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하기 사항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 GRI Standards 보고 원칙

■ 공통 표준(Universal Standards)

■ 특정주제표준(Topic Specific Standards)

- | | |
|---|--|
| - 하기 특정주제표준 경영접근방식(Management approach) | - 용수(Water): 303-1 |
| - 경제성과(Economic Performance): 201-1, 201-2 | - 배출(Emissions): 305-1, 305-2, 305-4 |
| - 간접경제효과(Indirect Economic Impacts): 203-1, 203-2 | - 고용(Employment): 401-1, 401-2, 401-3 |
| - 조달관행(Procurement Practices): 204-1 | - 산업안전보건(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403-1, 403-4 |
| - 반부패(Anti-Corruption): 205-2 | - 훈련 및 교육(Training and Education): 404-1, 404-2, 404-3 |
| - 경쟁저해행위(Anti-Competitive Behavior): 206-1 | - 다양성과 기회균등(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 405-1 |
| - 에너지(Energy): 302-1, 302-2 | - 인권평가(Human Rights Assessment): 412-2 |
| | - 고객개인정보보호(Customer Privacy): 418-1 |

보고서의 보고경계 중 조직 외부 즉, 해양환경공단의 협력회사, 계약자 등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는 검증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증절차

한국경영인증원의 검증팀은 합의된 검증 범위에 대해 상기 기술된 검증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절차를 거쳤습니다.

- 보고서에 담긴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 중요성 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검토
- 지속가능경영 전략 및 목표에 대한 검토
-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에 대한 검토
- 보고서 작성에 대해 책임 있는 담당자와의 인터뷰

검증결과 및 의견

검증팀은 문서검토 및 인터뷰 등의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공단과 보고서 수정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으며, 수정 및 개선권고 사항 반영을 확인하기 위해 보고서의 최종판을 검토하였습니다. 검증결과, 본 검증팀은 해양환경공단의 사회적가치실현보고서에서 아래 기재된 원칙 준수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부분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검증 범위에 포함된 상기 데이터가 적절하게 기술되지 않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포괄성

포괄성이란 지속가능성에 대해 책임 있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개발하고 달성해 나가는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토록 하는 것입니다.

- 해양환경공단은 이해관계자에 대한 조직의 책임에 대해 공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개발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해관계자 그룹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중요성

중요성이란 조직과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어떤 이슈가 갖는 관련성과 중대성을 판단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맥락에서 중요한 이슈란 조직 혹은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 행동 및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를 말합니다.

- 해양환경공단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파악된 이슈들의 중요성을 고유의 중대성 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결정하고 있으며, 검증팀은 이 프로세스에서 누락된 중요한 이슈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 대응성

대응성이란 조직의 지속가능성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한 조직의 대응을 의미하며, 이해관계자와의 커뮤니케이션뿐만 아니라 조직의 의사결정, 활동 및 성과를 통해 실현됩니다.

- 검증팀은 중요한 이해관계자 이슈에 대해서 해양환경공단의 대응 활동들이 보고서에 부적절하게 기재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 검증팀은 보고서가 GRI Standards의 핵심적 방식(Core Option)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개선을 위한 제언

한국경영인증원은 공단이 발간한 보고서가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하면서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 해양환경공단은 경영전략, 인권경영체계 등을 도식화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핵심 성과를 설정하고 실적 및 목표를 제시한 점이 높게 평가됩니다. 또한 보고서 내 적절한 주석 표기, Best Practice 삽입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이해가능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앞으로는 연도별 데이터 일관성을 더욱 강화하여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어 가기를 권고 드립니다.

검증의 독립성


한국경영인증원은 제3자 검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이외에 해양환경공단의 사업활동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이해관계도 맺지 않고 있으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19. 11. 29
대표이사 황은주

지속가능경영 이니셔티브

UN Global Compact(UNGC)

해양환경공단은 2012년 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여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에 대한 10대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인권 Human Rights	원칙 1 : 기업은 국제적으로 선언된 인권 보호를 지지하고 존중해야 한다. 원칙 2 : 기업은 인권 침해에 연루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노동규칙 Labour Standards	원칙 3 : 기업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실질적인 인정을 지지하고, 원칙 4 :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배제하며, 원칙 5 : 아동노동을 효율적으로 철폐하고, 원칙 6 : 고용 및 업무에서 차별을 철폐한다.
	환경 Environment	원칙 7 : 기업은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을 지지하고, 원칙 8 : 환경적 책임을 증진하는 조치를 수행하며, 원칙 9 : 환경친화적 기술의 개발과 확산을 촉진한다.
	반부패 Anti-Corruption	원칙 10 : 기업은 부당취득 및 뇌물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UN SDGs)

SDGs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약속이며, 2015년 9월 전세계 유엔회원국들이 모여 합의 후 만들어졌습니다. SDGs는 인류의 보편적 문제, 지구 환경문제, 경제 및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빈곤의 퇴치



기근 퇴치와 식량 안보



건강한 삶과 복지



양질의 교육



성평등과 여성 인권 신장



깨끗한 물과 위생



지속가능한 에너지 제공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속가능한 산업화



불평등 해소



지속가능한 도시 및 거주지 조성



지속가능한 소비



기후변화 영향 방지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



육상 생태계 보호



평화, 정의 실현




글로벌 파트너십

공단은 UN SDGs 지지를 선언하였으며 경영활동 전반에 걸쳐 전 인류와 상생하는 기반을 구축하여 지속가능성을 강화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UN SDGs에 부응하기 위해 수립한 목표별 세부 실행계획인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 이행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p>Goal 4  전략과제 해양오염 Co-Work 예방 체계 강화 세부 실행과제 해양오염 사고 예방 대국민 인식증진</p>	<p>Goal 5  전략과제 국민 공감 조직 역량 혁신 세부 실행과제 사람중심 인사보수체계 구축</p>
<p>Goal 8  전략과제 국민체감 사회적가치 실현 세부 실행과제 공유가치 창출형 민간일자리 창출</p>	<p>Goal 9  전략과제 미래성장사업 핵심사업화 세부 실행과제 해양공간 통합관리체계 구축</p>
<p>Goal 10  전략과제 국민체감 사회적가치 실현 세부 실행과제 사회형평적 채용 및 일자리 확대</p>	<p>Goal 13  전략과제 미래성장사업 핵심사업화 세부 실행과제 해양 기후변화대응체계 기반 구축</p>
<p>Goal 14  전략과제 해양생태계 통합관리체계 구축 세부 실행과제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체계화</p>	<p>Goal 17  전략과제 국민체감 사회적가치 실현 세부 실행과제 맞춤형 동반성장 활성화</p>

공단은 SDGs 중 다양한 목표를 이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특히 14번째 목표인 ‘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UN SDGs는 14번째 목표인 ‘해양 생태계 보호’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대양, 바다, 해양 자원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은 해양관리제도의 범위를 해양에서 연안·해양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을 통해 육상 및 해상 기인 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확장하여 해양생태계 보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DB 구축,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해양 산성화 영향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p>14 LIFE BELOW WATER </p> <p>해양, 바다, 해양자원의 보존</p>
<p>14.1 2025년까지 모든 종류의 해양 오염(특히, 해양쓰레기 및 부영양화 등의 육상 활동 등으로 야기되는 오염)을 예방하고 현저하게 줄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 인식 증진 활동을 통해 국민참여 해양쓰레기 수거량 전년대비 145.8% 증가 · 해양오염사고 예방률 64.6% 달성 · ‘APEC 해양쓰레기 가이드라인 개발’에 주도적 참여 · 종합적 오염예방 활동으로 오염사고 유출량 22.5% 저감 · 침물선박 현장조사 및 잔존유 제거 작업 실시 · 바다로 유입된 유해물질이 가라 앉아 쌓인 오염퇴적물 정화 활동 전개 · 드론을 활용한 해양부유쓰레기 사각지대 해소 및 4,551톤의 부유 쓰레기 수거
<p>14.2 2020년까지 해양 및 해안 생태계의 회복력을 증진시키고, 그 복원을 위한 조치를 실행함으로써 심각한 악영향을 막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해양 환경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과학적인 정기모니터링 기반 구축 · 해양보호구역 지정면적 대규모 확대(586km² → 1,777km²) · CO₂ 저감기술을 위한 블루카본 가치 입증 ·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 · 친환경 골재채취단지 운영 · 유해해양생물인 보름달물해파리, 갯끈풀 등의 제거 작업 실시

수상실적 현황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유공자 국무총리 표창

전국 단위 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을 통한
청소년 육성 및 보호 공로 인정

2018. 05. 24



제6회 대한민국 사랑받는 기업 정부 포상

공기업, 비영리기관 부문에서
사회적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한 공로 인정

2018. 11. 28



2018년 제44회 국가품질경영대회 서비스품질 우수상 장관 표창

교육 서비스 품질 혁신을 통한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 인정

2018. 11. 28



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 18001) 인증

KOSHA 18001 기준에 따른
사후심사 결과 “적합” 판정

2019. 06. 20



유네스코 지속가능발전교육 공식프로젝트 인증

해양환경 진로체험교육
(바다Jobgo)

2019. 07. 31



2019년 해양수산 신기술(NET) 인증

금야말감-원자흡수분광법을 이용한
해저퇴적물 및 패류 내 메틸수은 분석 시
적용 가능한 전처리 기술

2019. 08. 07



**2018년 대한민국 기후기술대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국내 블루카본 정보시스템 구축 및
평가관리기술 개발
2018. 07. 18



**환경교육
프로그램 인증**

해양환경 자유학기제 교육 프로그램의
친환경성·우수성·안전성 등을 인증
2018. 11. 19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명예의전당 교육부 장관 표창**

해양 미래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 인정
2018. 11. 22



**2018년 보안업무 우수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해양수산부 보안업무(정보보안분야)
우수기관 선정
2018. 12. 10



**2018년 공직복무관리업무 우수기관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해양수산업무 발전과
공직복무업무 관리에 기여
2018. 12. 31



**4차 산업혁명 경영대상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해양분야 서비스 혁신 선도
2019. 08. 22



**2019년 공공부문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국가 인적자원개발·관리 모범적 기준 준수,
인적자원 개발 투자 및 경쟁력 강화 인증
2019. 09. 03

가입단체 현황

연번	가입연도	협회 또는 단체 명
1	1997	대한민국해양연맹
2	2001	한국수산회
3	2006	해양환경안전학회
4	2007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2008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6	2009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7	2010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8	2011	한국해양산업협회
9	2011	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10	2011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
11	2012	한국해양재단

연번	가입연도	협회 또는 단체 명
12	2012	부산항발전협의회
13	2013	UN Global Compact
14	2013	한국항만협회
15	2014	한국해양구조협회
16	2015	한국수산업총연합회
17	2016	에코포트포럼
18	2016	바다녹화운동본부
19	2016	한국연안협회
20	2016	한국윤리경영학회
21	2018	한국인사행정학회

지난보고서





건강한 바다
풍요로운 미래
행복한 국민
with KOEM



본 보고서는 디자인, 인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디자인시 별색 지양, 인쇄공정시 콩기름 잉크사용, 코팅 공정을 지양하였습니다.